www.kci.go.kr

東方學志 제195집(2021년 6월), 237~281쪽
http://doi.org/10.17788/dbhc.2021..195.010

일제 초 개성사(開城社)의 설립과 경영*
-『일기』(1913)와 『타급장책』(1913~14)의 분석을 중심으로-

홍 성 찬**

〈차 례〉

1. 서언
2. 자료에 대하여
3. 설립과 경영
   1) 설립
   2) 경영
4. 결어

〈국문요약〉

1913년 개성의 인삼경작자를 비롯한 주요 자산가들은 상품의 판매와 위탁판매, 창고업, 대금업 경영을 목표로 개성사를 창립하였다. 그리하여 당대 최고의 글로벌대기업이던 미쓰이물산, 스탠다드석유, 영미연초회사 등과 특약점 계약을 맺어 일본산 면포와 미국산 석유, 담배 같은 신상품들을 수입 판매하였다. 그중 가장 큰 비중을 점한 것은 미쓰이물산을 통하여 수입한 일본산 면포였다. 이 글은 개성의 자산가들이 그곳의 오랜 상업적 전통과 20세기 초의 새로운 환경 속에서 개성사를 설립한 과정을 살펴보고 특히 이들이 당대 첨단의 글로벌대기업들과 어떤 조건의 특약점 계약을 체결하였던가를 개성사의 장부를 통해서 검토한 것이다. 20세기 초 한국은 '특약점의 시대'라 할 만큼 특약점 개설이 붐을 이루었는데 막상 그간에는 그에 관하여 큰 관심을 기울이지 못하였다. 아울러 1910년대 한국은 농업, 공업보다 상대적으로 상업이 활기를 띠었는데 정작 이 시기 한국인 상업회사의 설립과 경영을 그들의 장부를 통하여 꼼꼼하게 살핀 연구는 거의 없었다. 그 점에서 이 글의 연구사적 의의를 찾고 싶다.

핵심어: 개성상인, 개성인삼, 특약점, 미쓰이물산, 스탠다드석유, 영미연초회사, 김익환

* 이 연구는 아모레퍼시픽재단의 학술연구비 지원을 받아 수행되었음.
** 연세대학교 명예교수, 경제학.

www.kci.go.kr

1. 서언

그간 학계는 한국 근현대 상업사, 기업사 연구에서 큰 진전을 보였다. 근래에는 이 시기 상인들이 격동의 19세기 말, 20세기 초를 어떻게 대응하여 갔던가를 밝힌 연구가 여럿 나와 이 방면의 이해를 한층 넓혔다.[1] 개성상인에 관한 연구도 마찬가지였다.[2] 그러면서도 그간의 연구는 몇 가지 아쉬움을 남겼다. 그중 하나는 연구에 필요한 개인과 기업의 장부와 문서를 계통적으로 수집, 이용하지 못한 점이다. 그래서 당시 상인과 기업의 실상에 접근하기 어려웠고 그 결과 연구의 디테일을 살리기도 힘들었다.

이런 가운데 최근 학계는 이 시기 개인과 기업이 작성한 장부와 문서를 수집, 분석한 여러 연구를 내놓기 시작하였다. 그중 대표적인 것은 개성상인 박영진 집안의 장부를 발굴하여 19세기 말, 20세기 초 개성상인의 장부 작성 체계와 개성부기의 복식 부기적 성격을 논증하고 그곳 특유의 시변(時邊) 제도, 삼포 경영, 환어음 거래 등을 꼼꼼하게 살핀 연구이다.[3] 다른 하나는 늦어도 19세기 후반부터 서울 종로에서 수남상회라는 포목상점을 운영

1) 류승렬, 「한말 · 일제초기 상업변동과 객주」, 서울대 박사논문, 1996 ; 이태진 외, 『서울 상업사 연구』, 태학사, 1998 ; 이영호, 「인천 개항장의 한국형 매판, 서상집의 경제활동」, 『사학연구』 88, 한국사학회, 2007 ; 이승렬, 『제국과 상인 -서울 · 개성 · 인천 자본가들과 한국 부르주아지의 기원, 1896~1945』, 역사비평사, 2007 ; 동, 「한말 · 일제하 '근대의 충격'과 수원 지역 상인층의 대응」, 『향토서울』 84, 서울역사편찬원, 2013 ; 박은숙, 『시장의 역사 -교양으로 읽는 시장과 상인의 변천사』, 역사비평사, 2008 ; 이헌창, 「19세기, 20세기초 상거래 회계문서로서의 掌記에 관한 연구」, 『고문서연구』 35, 고문서학회, 2009 ; 고동환, 「조선후기~한말 신용거래의 발달」, 『지방사와 지방문화』 13-2, 2010 ; 전우용, 『한국 회사의 탄생』, 서울대학교출판문화원, 2011 ; 양정필, 「근대 개성상인의 상업적 전통과 자본 축적」, 연세대학교 박사논문, 2012.

2) 홍희유, 「송도 4개문서에 반영된 松商들의 都賈활동」, 『력사과학』 4, 1962 ; 杉本德榮, 『開城簿記の論理』, 東京: 森山書店, 1998 ; 변광석, 「18-19세기 開城의 市廛과 상업관행」, 『역사와 경계』 64, 경남사학회, 2007 ; 고동환, 「조선후기 開城의 도시구조와 상업」, 『지방사와 지방문화』 12, 역사문화학회, 2009 ; 양정필, 앞의 글, 2012 ; 동, 「일제강점기 개성 시변(時邊)의 변화 고찰」, 『역사문제연구』 37, 역사문제연구소, 2017 ; 동, 「개성상인과 중국 山西 상인 비교연구」, 『탐라문화』 62, 제주대학교 탐라문화연구원, 2019a ; 동, 「개성상인과 일본 오미(近江) 상인의 비교 연구 -그 기원과 정치권력과의 관계를 중심으로」, 『역사와 실학』 62, 역사실학회, 2019b ; 허성관 『개성상인의 탄생 -세계 최고의 복식부기를 만든 사람들』, 만권당, 2018a ; 왕현종, 「일제초 개성시가지의 변화와 개성상인의 경제기반」, 『동방학지』 194, 연세대학교 국학연구원, 2021.

3) 전성호, 「조선후기 환어음 거래분석(1887~1900)」, 『한국학연구』 38, 고려대 한국학연구소, 2011a ; 동, 「개성상인 삼포경영 비용구조 분석」, 『경영사학』 26-3(59호), 한국경영사학회, 2011b ; 동, 「개성 시변제도 연구」, 『대동문화연구』 78, 성균관대학교 동아시아학술원, 2011c ; 동, 「한국 전통

www.kci.go.kr

하고 한강 변 동막에서 동태원이라는 객주업체와 동일정미소를 경영하였던 김상태, 김상민 형제 집안의 장부를 활용하여 서울 종로 상인의 자산운용, 무역업, 지주경영과 일상활동 등을 검토하고 동막 객주의 미곡 거래, 정미 공장 설립과 재래 선운업의 실태를 분석한 연구이다.[4] 서울 · 경기지역에서 활동한 상인 주인식의 일기를 발굴하여 그의 민족의식 형성을 추구한 글, 그리고 한말 러시아무역에 관여한 함경도 경성(鏡城)의 천일회사와 1897년 서울의 유력 상인 · 개화파 관료들이 설립한 마차회사(horsecar company)의 자료를 분석한 것도 같은 예였다.[5] 최근에는 19세기 말 한국에 들어와 서울과 인천에서 대중국 무역을 하며 큰 부를 쌓은 중국 광둥성 출신 동순태호를 치밀하게 추적한 논저도 나왔다.[6]

회계의 원장 계정 기입 기법과 이탈리아 비둘기집 이론과의 비교 연구」, 『사학연구』 101, 2011d ; 「19세기 개성상인 일기(日記: Day Book)의 특성 연구」, 『태동고전연구』 44, 한림대학교 태동고전연구소, 2020 ; 정기숙, 「사개송도치부법의 기장원리와 장부조직에 관한 연구」, 전성호 · 허성관 외, 『한국전통회계와 내부통제시스템(Ⅱ)』, 민속원, 2011 ; 허성관, 「한국 전통회계 연구의 성과와 과제」, 『회계저널』 23-1, 한국회계학회, 2014 ; 동, 「박영진家의 19세기 사개송도치부 장부 회계순환 구조」, 『회계저널』 24-2, 2015 ; 동, 「박영진가의 19세기 복식부기 장부 회계처리 방법의 진화」, 『경영학연구』 45-3, 한국경영학회, 2016 ; 동, 「박영진가 복식부기 장부의 20세기 전후 삼포(蔘圃)회계와 현대적 경영사고」, 『경영학연구』 46-4, 2017 ; 동, 「조선왕조 말 개성상인 농업회계」, 『역사와융합』 2, 바른역사학술원, 2018b ; 동, 앞의 책, 2018a ; Jeon Sung-Ho, James E. Lewis, and Sung Kwan Huh, "Korean Double-entry Merchant Accounts from Kaesong City(1786-1892)," *Sungkyun Journal of East Asian Studies*, 13(2), 2013.

4) 홍성찬, 「한말 · 일제하의 서울 종로 상인 연구」, 『동방학지』 116, 2002 ; 동, 「한말 · 일제하의 지주제 연구」, 『동방학지』 122, 2003 ; 동, 「한말 · 일제하 서울 종로상인의 일상활동」, 『동방학지』 133, 2004 ; 동, 「한말 서울 동막의 미곡객주 연구」, 『경제사학』 42, 2007 ; 동, 「한말 서울 동막객주의 미곡반입과 재래 선운업」, 『한국사연구』 145, 한국사연구회, 2009a ; 동, 「일제하 한일 무역네트워크 형성의 한 양상」, 『동방학지』 145, 2009b ; 동, 「한말 서울 동막 객주의 미곡 거래와 荷主들」, 『동방학지』 159, 2012 ; 동, 「한말 일제초 서울 동막객주의 정미업 진출과 경영」, 『경제사학』 55, 경제사학회, 2013 ; 동, 「한말 일제 초 서울 상인과 한국 부르주아지의 기원」, 『한국경제학보』 55, 연세대학교 경제연구소, 2014 ; 동, 「일제하 서울 종로상인의 자산운용」, 『동방학지』 170, 2015 ; 동, 「19세기 말 서울 동막 객주의 미곡 거래」, 『동방학지』 176, 2016.

5) 이승렬, 「서울 · 경기지역 상인의 일기(1899~1910)에 나타난 일상체험과 근대적 공공성 - 유상(油商) 주인식의 '민족의식' 형성을 중심으로」, 『한국사연구』 146, 2009 ; 김재호, 「개항기 원격지 무역과 '회사'」, 『경제사학』 27, 1999 ; 오진석, 「1897~1900년 서울지역 마차회사(馬車會社)의 설립과 경영변동」, 『역사학보』 197, 역사학회, 2008.

6) 강진아, 『동순태호 -동아시아 화교 자본과 근대 조선』, 경북대학교출판부, 2011 ; 동, 『이주와 유통으로 본 근대 동아시아 경제사 -동순태호 담걸생 이야기』, 아연출판부, 2018 ; 石川亮太, 『近代アジア市場と朝鮮 -開港 · 華商 · 帝國』, 名古屋: 名古屋大學出版會, 2016.

www.kci.go.kr

이 글은 이런 선행 연구들에 기대어 일제 초인 1913년 4월에 김익환, 박태현, 고도후 등 개성의 인삼사업자를 비롯한 자산가, 유지 11명이 상품의 판매와 위탁판매, 창고업, 대금업 경영을 목표로 창립한 합명회사 개성사의 설립과 설립 초의 경영 실태를 살펴보려는 것이다. 여기서 이 시기의 여러 기업 가운데 특별히 이 회사에 주목한 이유는 아래와 같다.

첫째는 이들의 『일기』(1913)와 『타급장책』(1913~14)을 확보하였기 때문이다. 지금껏 보고된 개성상인의 장부는 일본 고베대학, 우리은행, 북한사회과학원 소장본과 박영진 집안의 장부 등 손에 꼽을 정도이다.[7] 개성사의 장부는 1920년대 초 교토(京都)제대의 오모리 겐조 교수가 개성부기의 복식 부기적 성격을 논증하기 위하여 참고한 적은 있으나 최근 개성사의 『명심록(銘心錄)』(1913.4.15~)이 소개되기 전까지는 그 실물이 전혀 공개된 적이 없었다.[8] 게다가 이들의 장부는 박영진 집안의 장부와 달리 개인이 아닌 회사 장부이고, 우리은행 장부와 달리 은행이 아닌 일반 회사 장부이며, 『타급장책』과 『외상장책(外上長冊)』을 따로 만들지 않고 『타급장책』에 몰아서 기재한 특징을 가진다. 이런 점들을 고려하여 여기서는 개성사의 『일기』와 『타급장책』의 기장방식을 소개하려고 한다.

둘째는 1910년대 한국인 상업회사의 설립과 경영을 개별 회사 레벨에서 구체적으로 살핀 연구가 거의 없었기 때문이다. 1910년대 일제는 한국을 일본의 상품시장으로 만드는 데 큰 힘을 기울였다. 그리하여 이 시기에는 상대적으로 농업과 공업의 발전 속도가 빨랐던 1920, 30년대와 달리 상업이 가장 활기를 띠었는데 막상 이 시기 상업회사의 설립과 운영을 해당 기업의 자료를 활용하여 디테일하게 검토한 예는 거의 없었다. 개성사를 통해 이 시기 상업회사의 설립을 꼼꼼하게 살펴보는 것이 이 글의 두 번째 목표이다.

셋째는 조선의 오랜 상업 도시였던 개성의 상인, 자산가들이 근대화와 식민지화의 소용돌이 속에서 근대 부르주아지로 변신하여간 사례를 보여주기 때문이다. 조선 후기 개성은 인삼의 경작과 제조, 수출의 메카였다. 그리고 개성상인은 인삼 무역으로 국제적 명성을 얻은 데다 송도사개치부법, 지방출상(地方出商), 주차동사(主差同事), 시변 같은 고유의 상사제도를 발전시켜 일본의 오사카 상인, 오미(近江) 상인이나 중국의 산둥(山東) 상인에 비견되곤 하였다.[9] 특히 19세기 중엽의 개성상인들은 개성에서 경작, 제조한 홍삼을 중국으로 수

7) 조익순, 『四介松都治簿法 前史 -우리나라 固有簿記의 발자취』, 해남, 2000 ; 조익순 · 정석우, 『(조선시대 회계문서에 나타난) 사개송도치부법의 발자취』, 박영사, 2006과 주 3의 논저들 참조.

8) 大森研造, 「開城簿記法の形式と內容」, 『會計』 13-1(53), 東京: 日本會計學會, 1923 ; 최광호, 「개성사 장부 분석에 의한 사개송도치부법 연구」, 대구카톨릭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2020.

9) 양정필 앞의 글, 2012, 2019ab.

www.kci.go.kr

출하는 데서 그치지 않고 그 대금으로 중국에 들어와 있던 서양산 포목을 수입하여 판매하는 데도 나서는 등[10] 산업혁명 이후의 세계시장 동향에 매우 민감하였다. 개성사는 개성의 상인, 자산가들이 이런 상업적 전통 · 경험과 자본력을 배경으로 20세기 초의 새로운 환경에 대응하여 설립한 회사였다. 개성사를 통하여 한국자본주의 발전과 부르주아지 성장의 내적 기원(internal origin)을 보여주는 한 사례를 제시하는 것이 이 글의 세 번째 목표이다.

넷째는 한국의 상인, 기업가들이 20세기 초 동아시아에 전개된 글로벌 유통네트워크에 어떻게 대응하였고 또 글로벌대기업들은 한국시장에 어떻게 접근하였는가를 보여주기 때문이다. 주지하듯이 당시 한국상인과 글로벌대기업을 이어준 고리는 특약점(sale agent) 제도였다. 개성사 역시 일본의 초대형 무역상사인 미쓰이(三井)물산과 대일본맥주회사(지금의 삿포로맥주), 미국의 스탠다드석유회사(Standard Oil Company)와 영국의 영미연초회사(British American Tobacco Company) 같은 글로벌대기업들과 특약점 계약을 맺어 일본산 면포(金巾)와 미국산 석유, 담배 등을 개성과 그 인근의 한포, 금교, 남천, 문산, 사리원, 신막, 철원 등지에 공급하였다. 그중에서도 특히 압도적 비중을 점한 기업은 미쓰이물산이었는데 이들은 한편으로는 개성의 인삼사업자들이 생산한 홍삼의 전매권을 불하받아 중국 상해 등지에 독점 수출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개성의 인삼사업자들이 주축이 되어 설립한 개성사와 특약을 맺어 일본산 면포를 판매하였다. 인삼 매입을 위하여 개성에 풀었던 자금을 면포를 팔아 회수하는 구조를 만든 것이다. 이런 점들을 염두에 두면서 이 시기 개성상인의 활동을 일국사가 아닌 동아시아유통사, 글로벌 경제사의 차원에서 조망하여 보는 것이 이글의 네 번째 목표이다.[11]

10) 그래서 연갑수, 「19세기 중엽 조청간 교역품의 변화」, 『한국사론』 42, 서울대학교 국사학과, 1999는 19세기 중반의 한중 무역을 '홍삼-서양목(西洋木) 교환체제'로 명명하였다. 그러나 당시 '서양목'을 중국의 누구에게 어떤 조건으로 수입하여 국내시장에 어떤 방식으로 유통시켰는가는 여전히 과제로 남겼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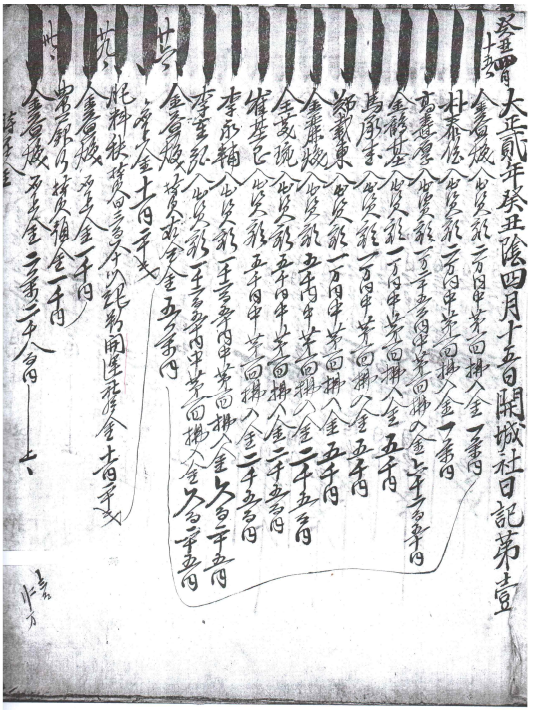
11) 이런 문제의식은 강진아, 앞의 책, 2011, 2018 ; 石川亮太, 앞의 책, 2016 참조.

www.kci.go.kr

2. 자료에 대하여

여기서 이용할 자료는 개성사의 『일기』와 『타급장책』이다.[12] 『일기』(journal)는 1913년 음력 4월 15일(양력 5월 20일. 이하 별도 언급이 없는 한 모두 음력임)부터 10월 2일까지의 모든 출납 사항을 순차 기록한 116면에 달하는 장부이다. 〈그림 1〉이 첫 면의 사진이고 〈자료 1〉은 1면과 2면 일부의 기재 예다. 편의상 일부는 한글과 요즘 숫자로 바꾸었고 가로쓰기로 옮겼다.

〈그림 1〉 『일기』(1913)의 사진



12) 표지 제목은 『日記 第壹. 開城社 大正貳年癸丑 陰四月拾五日陽五月二十日 上吉辰』(1913. 이하 『일기』로 표기)와 『他給長冊 第壹. 開城社 大正貳年癸丑陰四月拾五日陽五月二十日上吉辰』(1913-1914. 이하 『타급장책』으로 표기)이다.

www.kci.go.kr

〈자료 1〉『일기』(1913)의 기재 예

大正2年 癸丑 陰4月15日 開城社 日記 第壹

계축 4월

15日	金益煥	入	출자액 2만원中 제1회 拂入金 1만 원
	朴泰鉉	입	출자액 2만원中 제1회 불입금 1만 원
	------	--	----------
	李奎弘	입	출자액 1,250원中 제1회 拂入金 625원
	金益煥	捧次	右合金 5만 원
26일	金益煥	還上	金 11원 20전
	肥料秩	봉차	同 360叭 配朔 開運社 給金 11원 20전
29일	金益煥	還上	金 1천 원
	農工銀行	봉차	預金 1천 원
30일	金益煥	還上	金 2만 2,800원 上
	時在金		[2만 2,800원]
	邊捧秩	입	조정규 外 20인조 上 금 532원 75전 上
	石油會社	봉차	保證金 3,000원 下 (제일은행경성지점預定期)
	農工銀行	봉차	예금 2천 원 下
	農工銀行	還上	조정규給金 1,100원 下
	조정규	債給	陽 9월 1일限 금 2,300원 下
5월 1일	農工銀行	환상	金世卿 給金 300원 上
	金世卿	채급	양 8월 1일한 금 500원 下
	農工銀行	환상	推來金 400원 上
2일	農工銀行	봉차	예금 2,000원 下
3일	金容權	채급	양 7월 3일한 금 1,015원 下
	金鎭九	채급	양 8월 1일한 금 1,027원 50전 下
	------	--	----------
7일	金益煥	還上	금 1,519원 35전
	宅地	봉차	諸費幷金 1,519원 325전
	金益煥	환상	금 368원 13전 5리
	經費秩	봉차	비품조병금 368원 13전 5리
	金益煥	환상	현금 635원 85전 上
	,,	봉차	趙廷奎 金世卿 邊條 疊*金 187원 50전 下
	時在金		[635원 85전]

참고 : [ ]는 표산(標算)으로 표기됨. 그는 등자(鐙子) 표시임.

www.kci.go.kr

개성부기의 입(入)은 유가물(有價物)의 상실, 채무 및 이익의 발생을 표시하고, 봉차(捧次)는 유가물의 취득, 채권(債權) 및 손실의 발생을 나타낸다. 환상(還上)은 대금(貸金)의 반환, 외상 매출금 회수 등 채권(債權)의 소멸을 표시하며, 환급(還給)은 차입금 반환, 외상 매입금 지급 등 채무의 소멸을 나타낸다.[13] 이를 염두에 두고 〈자료 1〉을 보면 4월 15일 자는 김익환, 박태현, 이규홍 등이 1만 원에서 625원까지 출자한 자본금 5만 원을 김익환이 보관 중이라고 적은 것이다. 26일 자는 개운사(開運社)라는 운송회사에 비료 360입(叺. 포대, cloth bag)의 운반료(配朔) 11원 20전을 지급한 기록이다. 29일 자는 농공은행에 1천 원을 예금한 기록이다. 30일 자는 조정규 외 21명에게 이자 532원 75전을 받고 석유회사에 낼 보증금 3천 원을 일본 제일은행의 경성지점에 예금(정기예금)한 기록과 농공은행에 2천 원을 예금하고 또 1,100원을 찾아 조정규에게 2,300원을 빌려준(기한은 양력 9월 1일) 기록이다. 5월 1일 자는 농공은행에서 300원을 찾아 김세경에게 500원을 빌려주고 400원을 더 찾은 기록이다. 5월 2일 자는 농공은행에 2천 원을 예금한 기록이다. 5월 3일 자는 김용권, 김진구에게 대금(貸金)한 기록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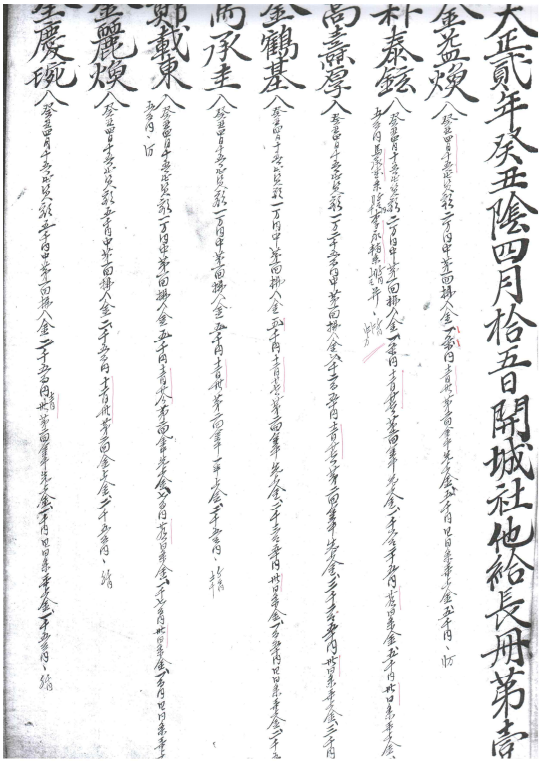
후자의 『타급장책』은 1913년 4월 15일부터 그 회계연도 말인 이듬해 4월 6일(양력 4월 30일)까지의 모든 입, 환급, 봉차, 환상 항목을 96면에 걸쳐 기록한 장부이다. 원래 타급장책(liability ledger)은 부채원장(負債元帳)으로서 일기에 분개한 항목 중 입(入)과 환급(還給) 기호가 적힌, 즉 부채와 이익 계정의 기록을 옮긴 것이다. 외상장책(asset ledger)은 자산원장으로서 일기에 분개한 항목 중 봉차(捧次)와 환상(還上) 기호가 적힌, 즉 자산과 손실 계정의 기록을 옮긴 것이다. 대개는 이 둘을 별도의 책으로 만들었지만 때로는 한 책에 적기도 하였는데 개성사의 『타급장책』이 그런 경우였다.[14] 〈그림 2〉는 『타급장책』의 첫 면의 사진이고, 〈자료 2〉는 첫 네 면의 기재 예다(원문은 모두 한자임).

13) 大森研造 앞의 글, 1923. 개성사 『일기』에는 入, 捧次, 還上, 還給 외에 일부 채급(債給), 채환상(債還上), 채환선상(債還先上), 채환필상(債還畢上)도 있다. 같은 용례이다.

14) 大森研造 앞의 글, 1923. 개성사는 『外上長冊 第壹. 開城社 大正貳年 癸丑 陽五月二十日 陰四月拾五日 上吉辰』이라고 적은 표지를 『日記』 표지의 배지(裨紙)로 사용하였다. 당초에 『외상장책』을 별도의 책으로 만들려다가 한 책으로 합치며 그 표지를 『일기』의 배지로 활용한 것 같다. 개성상인들의 장부와 장부 표기법은 金基浩, 『開城旧景』, 대한공론사, 1972 ; 동, 『松都治簿法四介文書의 槪要』, 동광인쇄소, 1986 ; 善生永助, 『朝鮮人の商業』, 朝鮮總督府, 1925 ; 玄丙周, 『實用自修 四介松都治簿法 全』, 金東縉 發行 德興書林 藏版, 1916 ; 허성관, 앞의 책, 2018, 참조.

www.kci.go.kr

〈그림 2〉『타급장책』(1913~14)의 사진



〈자료 2〉『타급장책』(1913~14)의 기재 예

大正2年 癸丑 陰4月15日 開城社 他給長冊 第壹

金益煥	入	계축 4월 15일 출자액 2만 원 中 제1회 拂入金 1만 원, 12월 30일 제2회금 중 先上金 5천 원 同日條 畢上金 5천 원 [2만 원]
朴泰鉉	입	계축 4월 15일 출자액 2만 원 中 제1회 拂入金 1만 원, 12월 27일 제2회금 중 先上金 1,625원, 29일조 금 5천 원, 30일條 畢上金 6,500원, 馬承圭條 [2,500원], 李永輔條 [625원]幷 [2만 3,125원]
———		----------
△邊捧秩	입	계축 4월 30일 趙廷奎 外 20人條 금 532원 75전, 5월 12일 金 4원 50전, 13일 금 49원, 14일 금 14원, 22일 금 60원, 23일 금 22원..... 11월 1일 금 1원 50전..... 10일 금 7원 [3,567원 17전] 內 계축 12월 30일 移錄金 3,567원 17전 下

www.kci.go.kr

△石油會社	입	계축 5월 13일 松票 100箱[376] 대금 376원, 仝 勝利票 41箱[359] 대금 145원 14전 同 勝利票 112箱[359] 대금 396원 48전..... 9월 8일 勝 5箱 대금 17원 70전 [1,703원 62전] 12월 30일 移錄金 865원 54전 計 內 계축 6월 12일 금 86원 98전..... 7월 29일 금 1,504원 44전 동금 1원 96전 [1,569원 16전]
△金益煥	捧次	계축 4월 15일 各 出資金 5만 원, 5월 7일 금 187원 50전[19,100원 71전 5리] [1,984원 85전] 11월 26일 금 1,984원 18전 5리 計 內 계축 4월 26일 11원 20전, 30일 금 22,800원, 5월 7일 금 1,519원 35전, 동일 금 368원 13전 5리..... 9월 9일 금 787원 50전
肥料秩	捧次	계축 4월 26일 동 360叭 配朔金 11원 20전, 7월 7일 동 360叭價 三井社 給金 1,151원 7전 [1,162원 27전]
△農工銀行 開城支店	捧次	계축 4월 29일 預金 1천 원, 30일 금 2천 원, 5월 2일 금 2천 원 ..... 8월 2일 금 2,500원, 5일 금 4,200원 [2,488원 18전] 內 계축 4월 30일 금 1,100원, 5월 1일 금 300원, 同 금 400원..... 9월 1일 100원, 동일 금 100원, 13일 移錄金 218원 6전 上
第一銀行 京城支店	봉차	계축 4월 30일 石油會社 保證金 條 大正3年 陽 6월 14일限 定期預金 3,000원
△趙廷奎	봉차	계축 4월 30일 債給 陽 9월 1일限 금 2,300원 內 계축 7월 30일 금 800원, 8월 1일 금 1천 원, 3일 금 500원 上

참고 : [ ] 안은 표산으로 표기됨. △는 완결 표시. 기불림 표기는 생략함.

첫줄 김익환에서 박태현까지는 출자금 납입 사항이다. '변봉질'(邊捧秩)은 조정규 외 20명을 비롯한 차금자들에게 도합 3,567원 17전의 이자를 받은 기록이다. '석유회사'는 송표[솔표]와 승리표 석유를 외상매입하고 대금을 지급(內 이하)한 기록이다. '김익환'은 창립대표로서 출자금 5만 원을 보관 중이던 김익환과 개성사 사이의 출납 내역을 적은 것이다. '비료질'은 미쓰이물산에서 비료 360입(叭)을 인수하고 운반료(配朔) 11원 20전과 매입대금 1,151원 7전을 지급한 기록이다. '농공은행 개성지점'은 동 지점에 예금, 출금한 내역이다. '제일은행 경성지점'은 석유회사에 낼 보증금 3천 원을 정기 예금한 기록이고, 맨 아래 '조정규'는 그에게 2,300원을 빌려주고 세 번에 걸쳐 상환받은 내역이다. 두 자료 모두 개성사의 설립과정과 설립 직후의 운영을 보여준다.

www.kci.go.kr

3. 설립과 운영

1) 설립

배경 - 개성사는 일제가 회사령을 공포하여 회사의 설립을 통제 중이던 1913년 3월 20일(양력 4월 26일) 개성의 자산가들이 설립 허가를 받아 그해 4월 15일(양력 5월 20일) "면포, 곡류, 잡류 등 각종 상품의 판매와 위탁판매, 창고업, 대금업 경영"을 목표로 설립한 합명회사이다.[15] 창립자본금은 10만 원이고 1913년 4월과 12월 두 번에 걸쳐 전액 납입받았다. 창립 당시 출자자는 11명으로 김익환, 박태현 등 개성의 이름난 자산가이자 명망가들이었다. 그중 창립대표 김익환과 박태현, 고도후, 정재동, 최기창 등은 개성의 이름난 인삼 경작자였고 또 김익환과 고도후는 개성삼업조합의 이사였다(표 1). 1915년의 임원은 사장 김익환, 이사 박태현, 김학기, 최진영, 지배인 이희중, 감사 최기창, 마승규였고, 이외 고문으로 송병준 자작과 박우현 전 군수, 상담역으로 오카모토 도요키(岡本豊喜) 개성신보 사장을 영입하였다.[16]

설립 초 개성사는 일본의 미쓰이물산, 미국의 스탠다드석유, 영국의 영미연초 등과 특약점 계약을 맺고 면포, 면사, 면화, 비료, 설탕, 술, 석유, 담배 등을 공급받아 개성은 물론 인근의 한포, 금교, 남천, 문산 등지에 판매하였다.[17] 당시 개성의 자산가들, 특히 그곳 인삼경작자들이 미쓰이물산 같은 초대형 글로벌대기업들과 특약을 맺고 영업에 나선 데는 몇 가지 배경이 있었다.

---

15) 『조선총독부관보』 1913.4.26. ; 『매일신보』 1913.5.24. '최근의 개성. 합명회사의 승인.'

16) 內外商品新報社編輯部 編, 『朝鮮商業總覽』, 京城: 內外商品新報社, 1915, 90쪽.

17) 韓生, 「開城의 企業界」, 『半島時論』 2권 5호, 1918.5, 60쪽의 "(개성사는) 미쓰이물산의 특약점인 동시에 스탠다드석유회사의 특약점이다. 三井과의 年거래는 약 60만 원.... 석유회사와의 年거래는 10만 원에 미친다. 곧 同社는 三井으로부터 면포, 곡물 및 잡화 등을 위탁 또는 판매하며 석유회사로부터는 오로지 석유를 위탁하여 판매한다. 이외에 창고업 또는 금융업을 겸하였다. 同 회사의 특약점으로는 金郊, 汗浦, 南川, 汶山 기타 10여 개 所에 산재한 今日이다. 同社의 金錢貸付 方은 거의 信用貸金이니 年 약 100만 원에 달하며" 참조.

www.kci.go.kr

〈표 1〉 개성사의 창립 출자자 단위: 원

이름	1회	2회	계	비고
金益煥	10,000	10,000	20,000	삼포 경작, 삼업조합 이사. 지주로서 미간지와 식림에도 투자. 개성 南本町 町長. 일본 시찰
朴泰鉉	10,000	13,125	23,125	삼포경작. 박우현의 4촌. 일본 시찰
高燾厚	6,250	6,250	12,500	삼포경작, 삼업조합 이사. 개성 池町 町長. 개성 공립보통학교 학무위원. 일본 시찰
鄭載東	5,000	5,000	10,000	삼포경작. 前군수 鄭泰燮의 아들. 개성 文廟의 석전제 집례
金鶴基	5,000	5,000	10,000	
馬承圭	5,000	2,500	7,500	시종원 분시어 (分侍御) , 황해도 관찰부 주사
金麗煥	2,500	2,500	5,000	永信社(상품도산매, 위탁판매, 창고금융업) 설립 참여
全慶琬	2,500	2,500	5,000	六一社(농지개발회사) 사원(파트너)
崔基昌	2,500	2,500	5,000	삼포경작
李奎弘	625	625	1,250	前군수(楚山, 平山 등). 개성 문묘 석존제 아헌관
李永輔	625	—	625	개성 文廟 直員
계	50,000	50,000	100,000	

자료 : 『일기』, 『타급장책』. 1회는 1913년 4월, 2회 그해 12월 납입.

개성은 조선 후기 이래 인삼 생산과 제조, 수출의 메카였다. 그래서 이곳의 상인, 자산가들은 일찍부터 인삼의 경작은 말할 것도 없고 그 제조와 수출에도 깊이 간여하였다. 한편 대한제국의 인삼 정책은 정부가 인삼경작자들이 재배한 수삼(水蔘)을 독점한 후 그중 양질의 것들만 매입하여 홍삼으로 제조(증기에 쪄서 말림)하여 팔고 나머지는 경작자들이 백삼(白蔘)으로 제조(햇볕에 말림)하여 팔도록 한 사실상의 전매(monopoly) 제도였다. 나아가 정부는 통감부 시기인 1908년에 홍삼전매법을 제정하여 홍삼의 제조, 판매는 물론이고 인삼의 경작조차 국가의 허락을 받도록 하였다.[18] 이로써 개성에는 인삼 즉 수삼의 수매와 홍삼의 제조, 판매를 책임진 전매 당국의 출장소와 부속 증삼소(蒸蔘所), 창고 등이 들어섰고 홍삼, 백삼, 미삼(尾蔘. 백삼제조 때 생긴 잔뿌리를 건조한 것)을 사려는 국내외 상인들이 몰려들었다. 이에 전매 당국은 일본의 미쓰이물산과 중국의 동순태(同順泰), 유풍덕(裕豊德), 독일의 세창양행 등이 참가한 가운데 매년 입찰을 벌여 1907년에는 미쓰이물산, 1908년에는 동순태, 1909년에도 중국 상인에게 홍삼 전매권을 매각하였다.[19] 그리고 1909

18) 양정필, 앞의 글, 2012.

www.kci.go.kr

년 7월에는 그간의 매년 입찰 방식을 바꾸어 1910년부터 5년간 미쓰이물산에 홍삼의 판매를 독점시키기로 하였고 그 후에도 이를 계속 연장하였다.[20] 이로써 미쓰이물산은 개성 사회, 특히 개성의 인삼경작자들과 사업적으로 긴밀한 관계를 맺게 되었다.[21]

인삼의 경작과 판매로 개성상인, 자산가들의 자금 사정은 매우 풍부하였다. 개성에는 매년 상당액의 삼업(蔘業) 자금이 한호농공은행과 삼업조합을 통해 유입되었고, 홍삼의 원료인 양질의 수삼을 당국에 납품하고 받은 대금과 백삼, 미삼을 시장에 판매하고 받은 대금도 들어왔다.[22] 인삼 수출로 개성의 무역 인프라도 강화되었다. 경의선, 경원선을 따라서 개성과 문산, 토성, 금교, 한포, 남천, 신막, 사리원, 철원 등지에 철도역과 화물창고, 화물운송점이 들어섰고[23] 외환과 무역금융을 취급할 대한천일은행, 일본 제일은행, 한호농공은행, 한국은행(1910년 2월 폐쇄), 한성은행의 지점이 설치되었으며, 우편국이 들어서 무역 정보를 실시간으로 주고받을 전신, 전화, 우편, 소포 서비스도 제공되었다. 무역 관련 분쟁과 사법 수요를 감당할 재판소와 경찰서가 들어섰고, 지역 정보와 국제뉴스를 생산 전달하고 상업광고를 게재할 지역신문과 전국신문의 지사도 설치되었다. 1910년 2월에는 개성 포구 벽란도에 세관도 설치되었다.[24]

특별히 당시는 특약점(sale agent) 개설이 붐을 이룬 시기였다. 주지하듯이 외국과의 무

---

19) 양정필, 앞의 글, 2012, 210쪽 ; 『황성신문』 1907.10.13. '紅蔘輸去', 1908.8.27. '人蔘落札'.

20) 양정필, 앞의 글, 2012, 211쪽 ; 『황성신문』 1909.7.24. '人蔘賣下入札' ; 『대한매일신보』 1909.7.31. '淸商狼狽', 1909.9.3. '無利不干'. 미쓰이물산은 홍삼 수출에도 적극 나서 1912년에 2,300근, 1913년에 2천근, 1915년에 8,900근 등을 중국 芝罘로 수출하였다. 『매일신보』 1912.1.9. '인삼가격의 등귀', 1912.3.1. '작년 제조의 紅蔘', 1912.6.22. '작년도 紅蔘 수출', 1913.5.17. '홍삼의 芝罘 수출', 1915.6.3. '紅蔘 芝罘輸出'.

21) 개성의 인삼사업자들이 미쓰이물산의 주선과 안내로 두 차례의 긴 해외여행(일본, 중국, 대만)을 다녀온 것이 단적인 예다. 최낙민, 「1920년대 개성상인들의 홍삼 판로 시찰기 고찰 -'중유일기'와 '항대기람'을 중심으로」, 『중국학』 73, 대한중국학회, 2020.

22) 인삼경작자들이 홍삼의 원료인 수삼을 수매에 넣고 받은 대금만 보아도 1910년 1만 2천 원, 1911년 3만 6천 원, 1912년 9만 4천 원, 1913년 27만 1천 원, 1914년 37만 6천 원, 1915년 47만 7천 원, 1916년 84만 2천 원, 1918년 33만 5천 원, 1919년 68만 7천 원대로 급증하였다. 양정필, 앞의 글, 2012, 212쪽.

23) 개성에서 '河舟 及 철도운송과 위탁품 매매 및 창고업'을 한 日韓運送합자회사(지점), 汗浦에서 '곡물객주와 화물운송업'을 한 大同運輸회사(지점)가 예다. 『대한매일신보』 1910.4.9. '광고', 1910.7.10. '광고'. 총독부 철도국도 1913년 7월 개성, 금교, 汗浦, 南川, 新幕역에서, 10월에는 경원선 철원역에서, 1915년 2월에는 원산역에서 창고업을 시작하였다. 이들 역 주변에는 다수의 잡화상, 곡물상이 들어서 영업하였다. 류승렬, 앞의 글, 1996, 248쪽.

24) 『황성신문』 1910.1.26. '稅關設置.'

www.kci.go.kr

역이란 정보의 비대칭성(asymmetric information)이 심하여 리스크가 큰 사업이었다. 수출업자는 소비지의 실정과 수입업자의 신용을 모르고 수입업자는 생산지의 사정과 수출업자의 신용을 알기 어려웠다. 식민지 신흥시장(emerging market)은 더욱 그러하였다. 그래서 수출업자는 현지의 상인, 자산가 중에서 지식과 경험, 자본과 신용이 풍부한 파트너를 정하여 특약점 계약을 체결하였다. 원래 특약점은 제조회사나 상사회사가 현지의 상인들과 취급 상품, 판매지역, 거래 조건 등을 특별약정하고 그 판매권을 부여하였는데 대개 상품의 판매가격 결정과 광고, 선전 및 애프터서비스 등은 회사가 맡고 특약점은 조사기능, 금융기능을 맡는 경우가 많았다. 제조회사나 상사회사로서는 자사 제품의 판로를 개척하고 과당경쟁에 따른 가격하락이나 대손(貸損) 위험을 막는 등 장점이 많은 제도였다. 현지 상인도 마찬가지였다. 비록 경합상품을 취급하지 못하고 또 대개는 일정액 이상을 팔아야 하는 등 어려움이 따랐지만, 해당 제품의 판매 독점권을 가진 데다 계약에 따라 수수료는 물론 매출액 일부를 성과급으로 돌려받을(rebate) 수도 있어 유리한 제도였다.

그리하여 이 시기 한국은 '특약점의 시대'라고 할 만큼 특약점 개설이 붐을 이루었다. 1905년 6월 서울 남대문 안 회동의 파상회(巴商會)가 미쓰이물산과 특약을 맺어 건축 자재와 기계, 면사, 양지(洋紙), 곡물, 설탕 등을 수입 판매한 것, 1906년 2월 서울 니현(泥峴)과 인천의 희다금광당(喜多金光堂) 상점이 라운션도상회와 특약을 맺어 시계를 수입 판매한 것, 1909년 12월 서울 소공동의 법한연초회사가 중국 상해의 동양연초대제조창과 특약을 맺어 담배를 수입하고 서울과 평양의 대리점을 통해 판매한 것이 그런 예였다.[25] 평양의 미마상점, 인천의 요네쿠라 게이스케(米倉啓助), 쓰다 고조(津田光藏) 등과 특약점 계약을 맺은 조선연초주식회사가 1914년 6월 기사장(技師長)과 판매 주임 등을 현지에 보내 매출확대 이벤트를 한 것,[26] 좀 뒤의 일이지만 경상남도 진주의 시모조 사다지로(下條貞次郎)가 오사카에 본점을 두고 경성에 지점을 둔 청주(淸酒)회사 오쓰카(大塚)합명의 특약점이 되어 그 회사 제품인 '금로(金露)'를 판매한 것도 같은 예였다.[27]

개성도 마찬가지였다. 1907년에 개성 북부 상동의 흥업사가 일본 오사카 상인과 특약을 맺어 서울 남대문 안 수교(水橋)의 배양(培養)회사와 인천 내동의 광제호(廣濟號) 같은 지점을 통해 기계 등을 수입 판매한 것,[28] 1912년 10월 개성의 자산가들이 상점 및 창고 대여 등을 목표로 자본금 1만 원의 합자회사 영신사를 설립하여 그곳 양성(兩城)시장을 설

25) 『황성신문』 1905.6.22. '광고', 1906.2.13. '광고' ; 『대한매일신보』 1909.12.19. '광고'.

26) 『매일신보』 1914.6.12. '朝鮮煙草의 出張賣出', 1914.6.17. '煙草大賣(平壤)'

27) 『부산일보』 1918.2.22. '下條 金露 특약점' ; 『조선총독부관보』 1916.3.25.

28) 『대한매일신보』 1907.3.24. '광고'.

www.kci.go.kr

립 운영하다가 1918년에 자본금을 30만 원으로 늘리고 일본 스즈키(鈴木)상점과 특약을 맺어 염류(鹽類) 등을 위탁판매한 것이 예였다.[29] 1913년 4월에 개성 대화정(大和町)의 삼영(三榮)상회가 오사카(大阪)인조비료회사와 특약을 맺어 그 회사 비료를 수입 판매하며 활동사진과 축음기를 틀어주는 이벤트를 한 것도 같은 예였다.[30] 1915년에 개성에서 잡화상을 경영한 박정익이 동아연초회사, 조일(朝日)양행, 스탠다드석유회사 등과 특약을 맺고, 미곡상을 운영한 최증상이 동양연초회사, 라이징선석유회사와 특약을 맺은 것도 그런 예였다.[31] 개성사는 개성의 자산가들 특히 인삼 경작과 제조, 수출에 간여하였던 이들이 그곳의 오랜 상업전통과 송도사개치부법 같은 개성 고유의 상사제도, 그리고 인삼 무역 확대로 조성된 미쓰이물산과의 관계구축, 풍부한 자금력, 무역 인프라, 특약점 확대 같은 새로운 환경을 활용하여 상업회사를 설립한 경우였다.

경과 - 개성사는 1913년 4월 15일(양력 5월 20일) 개성 남대문 안 대화정의 구 제일은행 건물을 빌려 창립총회를 열고 거기서 영업을 시작하였다.[32] 5월에는 지동(紙洞)의 주가(酒家)를 매입하여 창고 등으로 쓴 것 같고,[33] 그 후 대화정의 삼영상회[34] 건물을 매입하여 숙직실 등을 추가건축한 후 9월 1일에 인근의 중개업자 7, 80명을 불러 연회를 연 것으로 보아 늦어도 8월 말, 9월 초에는 큰 공사와 입주를 모두 마친 것 같다.[35] 대지 84평에

---

29) 영신사는 內外商品新報社編輯部 編, 앞의 책, 1915, 73~74쪽 ; 『매일신보』 1924.1.13. '시장경영 폐지. 兩城, 都橋의' ; 韓生, 앞의 글, 1918.

30) 『매일신보』 1913.4.16. '三榮商會의 확장'.

31) 內外商品新報社編輯部 編, 앞의 책, 1915, 80, 85쪽.

32) 『매일신보』 1913.5.24. 제일은행 건물은 한국은행을 거쳐 농공은행으로 넘어간 듯하다. 임대료는 월 60원이었다. 『일기』 5.27. 經費秩 捧次 가옥세 陽6월분條 農銀行給金 60원下, 6.28. 家屋稅 農工銀行給金 60원下, 7.30. 가옥세 陽8월분條 農銀行給金 60원下, 9.27. 秋等 家屋稅 給金 2.5원下.

33) 『일기』 5.7. 宅地 捧次 諸費幷金 1.519원 35전下, 5.28. 紙洞 酒家價 先給.... 60원下, 6.10. 紙洞 酒家價 임진수 給金 官契來在 [100원]下, 6.22. 紙洞 酒家價 畢給金 100원下.

34) 삼영상회는 1912년 1월경 개성의 이시우가 설립하였다. 1907년에 개성 출신으로 재계의 거물이던 김기영 등이 설립 운영하여왔던 개성사(이 글의 개성사와 상호가 같다)를 매수하여 그곳 대화정에 2층의 서양식 건물과 창고 등을 짓고 오사카인조비료회사의 비료 등 각종 수입상품을 5, 6곳의 대리점을 통하여 도소매하였다. 『매일신보』 1912.10.6. '상업계에 광영', 12.13. '삼영상회의 발전', 1913.2.1. 삼영상회 대발전', 4.16. '삼영상회의 확장', 4.22. '삼영상회 대활동'.

35) 『매일신보』 1913.8.12. '개성사의 대건축', 1913.9.4. '개성사의 일층 확장' ; 『일기』 6.28. 건축질 봉차 木手先給價, 石手先給 [60원]下 ; 7.17. 건축질 봉차 材木價畢給金 運賃[390전]下 ; 8.26. 材木價 李熙中 先給金 300원下 ; 9.11. 材木價 右計金 120원下, 6.29. 雜石運費 [90전]下, 7.17. 瓦 5律價 先給金

www.kci.go.kr

25평과 8평짜리 창고 2동이 딸린 2층 건물이었다.[36] 회사 사무실에는 업무용 탁자, 의자, 전화, 금고와[37] 난로, 숯, 소화기를 갖추었고[38] 조명용 유정(油灯), 장명등(長明炡)과 커튼(門帳)을 설치하였다.[39] 사무용 도장, 붓, 종이, 장부(長冊, 日記), 통지서, 등사판, 엽서와[40] 접대용 차, 담배, 상(床), 자리(席), 목물(木物), 사기(沙器)를 비치하였고[41] 줄, 사다리(梯), 족답기와 배달 및 운송용 자전거, 마치 같은 비품과 도구도 장만하였다.[42]

사원은 출자자 외에 6명이 근무하였다. 지배인급으로 보이는 최진영, 이희중의 월급은 40원이고 이영우(1895~)는 15원이었으며 임광규, 경선, 돌남은 각각 8원이었다.[43] 이들

110원下, 7.18. 瓦 5律價 畢給 60원下, 8.3. 瓦 5律 木材配朔 廣安給金 16원 76전下 ; 8.21. 瓦 17律價先給 295원 45전下 ; 9.7. 瓦 17律 送金中＃ 物先給金 100원下, 9.15. 瓦 17律 運賃朔 幷入帳給金 58원 6전下, 9.27. 瓦運賃 及 입장거금 50원下, 7.29. 鐵門價 中桐店給 農銀換 送金 25원下, 8.13. 철문가 畢給 中桐조 郵局給金 38원下, 8.1. 三井社 捧次 三榮商會 全部買收坪中先給 右換送金 1만 원下. 8월에 주소 이전등록세를 낸 것도 그 때문일 것이다. 『일기』 8.17. 경비질 봉차 住所移轉登錄稅 給金 1원下.

36) 왕현종, 앞의 글, 2021, 240쪽. 건물 사진은 內外商品新報社編輯部 編, 앞의 책, 1915, 90쪽.

37) 『일기』 9.16. 경비질 봉차 탁자 6개 配朔 廣安號 給金 30전下, 9.16. 탁자 4개 配朔.... 22전下 ; 6.7. 의자 16개 運賃 大同給金 1원60전下, 9.11. 의자 4개..... 淸韓洋行 給金 40원下, 9.29. 의자장식철價金 2원下, 6.1. 제2기 電話料 給金 15원40전下, 8.2. 電話移轉料 給金 15원下, 8.12. 域外通話料 8월분조 郵便局 給金 3원30전下, 9.11. 제3기 電話料金 15원 40전下, 9.11. 陽8월분 區域外通話料金 5원30전下 ; 5.26. 小金櫃 1개 [1원20전]下, 8.2. 金庫 2座.... 306원 28전下.

38) 『일기』 9.28. 경비질 봉차 난로 2座價 藤谷 給金 57원下 ; 5.19. 木炭 2石價 乭南 給金 50전下, 6.3. 목탄 3석 [66전]下, 8.1. 목탄 1석.... 1.25원下, 8.20. 목탄 2석 [65전]下, 9.8. 木炭價 乭南 給金 1,85원下, 5.26. 消化器 2개[27원]下 ; 5.29. 消化器 配朔.... 7전下 ; 6.19. 消化器＃價 小川 給金 36전下.

39) 『일기』 5.14. 경비질 봉차 油灯料 陽6월 半朔分條 給金 33전下, 8.2. 門帳 13건, 長明灯 1개價 삼영상회 給金 306원 28전下.

40) 『일기』 6.4. 경비질 봉차 圖章 4枚價..... 2원80전下 ; 8.13. 文書筆 10柄 [90전]下 ; 5.27. 書厚 1束價 하재운 給金 3.96원下, 5.15. 長冊 1卷價 [12전]下, 5.27. 日記 10束.... 3원96전下, 6.10. 帳簿價 日韓會社給.... 70원 48전下, 6.4. 엽서 10매 1원 50전下, 8.28. 通知書用 葉書 300枚價 4.5원下 ; 9.22. 通知葉書 300枚 印刷料 岡本店 給金 1원50전下, 8.13. 車索 1條 [60전]下.

41) 『일기』 8.20. 경비질 봉차 내출러 1통 [90전]하, 8.23. 살사빌 1통가 20전하, 6.8. 煙竹價金 5전5리下, 9.11. 床 2介價 淸韓洋行 給金.... 40원下, 5.12. 床褓 1건가.... [3원60전?]下, 7.30. 席價 [1원92전5리]下, 9.18. 席＃敷 工錢 [50전]下, 8.22. 木物價 增田 給金 98원, 5.28. 沙器價 [2원5전]下, 9.1. 沙器價 [4원2전5리]下.

42) 『일기』 5.28. 경비질 봉차 自行車稅 [90전]하, 9.1. 自行車稅 [2원11전5리]하, 5.12. 梯用 木價 [27전5리]下, 8.26. 足踏機價 山下店 給金 4.8원, 8.14. 馬治 1개 [30전] 車油價 [5전]下, 5.7. 備品條 幷金 368원 13전 5리下.

43) 『일기』 5.26. 경비질 봉차 月料 李永祐給 42일분 21원下 ; 5.26. 月料 林光奎給 40일분 10.67원하

www.kci.go.kr

에게는 월급 외에 혼인 등 관혼상제를 지원하였고,[44] 변성진(월급 6원)과 창고 물품 정리인을 잠시 고용하기도 하였다.[45] 사원들은 문서 및 장부 작성과 거래처 관리, 주문과 재고 관리, 은행 출입, 우편 및 화물 운송, 건축 공사 등 일상 업무를 추진하며 미쓰이물산 등의 지점이 있던 서울, 인천과[46] 개성 인근의 남천, 철원, 토성 등지를 출장하였다.[47] 이들은 10세 전후부터 수년간 기초적인 한문과 개성부기를 배우기 시작하여 10대 후반경 상업 실무에 종사한 것 같은데 그중 최진영(1885~)은 1891년부터 약 10년간 사숙에서 천자문, 통감, 소학, 대학, 논어를 배운 후 1901년부터 상업에 종사하며 상법, 개성부기 등을 익혔다. 그는 1906년 12월 개성의 일어속성야학교에 입학하여 산술, 작문, 번역도 배웠고, 1907년 3월 이후 대한천일은행 개성지점에서 근무하였다.[48] 이들은 미쓰이물산 경성지점장과 지점장 대리, 화상총회(華商總會) 회장, 한성은행 은행장 등 다양한 방문객을 맞았다.[49] 사원들은 이곳의 경력을 바탕으로 그 후 개성의 유력인사로 성장하였다. 개성학당 졸업생인 최진영은 개성사의 출자사원을 거쳐 송도금융조합장이 되었고, 이희중은 중외일보 개성지국

; 5.26. 月料 乭南給 33일분 6.6원하 ; 6.29. 李永祐[15] 林光奎[8원] 邊星鎭[6원] 合金 陽7월분 29원하 ; 7.3. 月料 李熙中[96원] 崔進永[86원66전]下, 8.1. 進永 熙中[80원] 永祐[15원] 光奎[8원] 乭南[6원] 합금 109원下 ; 9.1. 月料 永祐[15원] 광규 경선 돌남[24] 합금 39원下, 9.8. 進永 熙中 陽9월분조 금 80원下. 최진영, 이희중은 1915년 현재 이사, 지배인이었다. 內外商品新報社編輯部 編, 앞의 책, 1915, 90쪽.

44) 『일기』 9.26. 경비질 봉차 景善婚 給金 4원下.

45) 『일기』 9.14. 수수료 봉차 倉庫物品整理役 1名價 景善去金 50전下.

46) 『일기』 5.26. 경비질 봉차 京用 점심[470전] 車朔[10원72전] 人力車朔[28전] 雜費[1원20전] 합금 19.43원下 ; 6.22. 京旅費[13원69전]下 ; 5.19. 京去 人力車朔 급금 30전下 ; 6.6. 京旅費 人力車朔[1원25전] 電車朔[12전] 合金 1.37원下 ; 6.28. 京旅費 김덕호급금 5.59원下 ; 7.18. 京城旅費 車朔[4원90전] 電車[1원] 人力車[1원75전] 煙價[8원53전5리] 합금 16.185원下 ; 7.18. 京城旅費 熙中 1人分 3.45원下, 6.3. 車朔[3원92전] 電話料[1원20전] 煙價[7원8전] 합금 12.2원下, 6.5. 仁川旅費條 崔進永 給金 2.39원下.

47) 『일기』 8.10. 경비질 봉차 南川旅費 김홍성 급금 2원下, 8.18. 南川旅費 김운성 급금 1.8원下, 9.23. 南川旅費 永祐 給金 日記 2卷 10月18日條 60전 移* 1.22원下, 8.11. 鐵原旅費 김준형급금 5원下, 8.14. 철원여비 김준형가급금 1원下, 8.20. 土城旅費金 김방식급금 26전 5리下.

48) 이승렬, 앞의 책, 2007, 132~133쪽.

49) 『일기』 7.3. 경비질 봉차 華商總會長 接用[470전]下 ; 7.4. 華商總會長 來時 人力車朔 給金 2.1원下. 華商總會는 北幇會館(수표동, 산동성 출신), 廣東會館(태평통, 광동 출신), 南方會館(서소문정, 남방 출신)과 더불어 서울의 대표적인 중국인 상인단체다. 京城府 編, 『京城府史』 권3, 1917, 515쪽. 1913년의 화상총회장은 재한 화교 사회의 거물이자 경성에서 부리호(傅利號)라는 주단 잡화점을 경영한 장시영(張時英)이었다. 김희신, 「在朝鮮 中華商會의 설립과정과 존재양태 -1912~1931년 경성지역을 중심으로」, 『중국근현대사연구』 73, 중국근현대사학회, 2017.

www.kci.go.kr

장이 되었다. 이세현은 개성학당 졸업 후 한호농공은행 인천지점 근무를 거쳐 개성사의 경성지점장이 되었고 1939년에는 강화의 대지주 홍씨가의 조양방직을 인수하여 해방 후에도 운영하였으며 이승만 정부 때는 대한상공회의소 부의장, 의장을 지내는 등 한국 재계의 유력인사가 되었다.[50] 개성학당 출신 이영우도 동양척식회사를 거쳐 개성사에 입사하여 지배인을 지냈고 1928년에 개성상사(開城商事)회사를 설립하였으며 1931년에는 개성부의 부회의원이 되었다.[51]

개성사는 정치, 사회 네트워크의 유지를 위한 활동에도 적극적으로 나섰다. 도로와 우물을 기증하고 소방비, 치도비를 냈으며 소학교운동회를 지원하고 천장절 경축비도 냈다.[52] 상업회의소에 매달 월연금(月捐金)을 냈고, 십속회(拾粟會)라는 모임에 연조금을 냈으며, 1913년 9월과 1914년 1월에는 개성 인근의 중개업자와 실업가들을 초빙하여 성대한 연회를 열기도 하였다.[53] 매일신보, 조선신보, 개성신보 등을 구독하고 광고를 냈으며[54] 그 외 각종 인쇄물을 통한 광고에도 치중하였다.[55]

---

50) 『동아일보』 1925.1.21 ; 『매일신보』 1928.11.24 ; 홍성찬, 「한말 · 일제하의 지주제 연구 - 강화 홍씨가의 추수기와 장책 분석을 중심으로」, 『한국사연구』 33, 1981 ; 『동아일보』 1957.4.4. '會長에 李世賢氏. 大韓商議서 選出'.

51) 개성상사(주)는 '면사포, 곡물, 잡화류의 판매, 위탁판매와 창고업, 금융업'을 하였다. 中村資良 편, 『朝鮮銀行會社組合要錄』, 東洋經濟新報社, 1931 ; 藤村德一, 『全鮮府邑會議員銘鑑』, 朝鮮經世新聞社, 1931, 100쪽 ; 朝鮮新聞社 編, 『朝鮮人事興信錄』, 朝鮮人事興信錄編纂部, 1935, 517쪽.

52) 『일기』 6.28. 경비질 봉차 消防費 [3원]下, 9.14. 道路기부[100원] 後井기부[50원]合 警察署 給金 150원下 ; 5.23. 古南門 治道雇 3명 里長給 1.05원下, 9.20. 소학교운동회 기증금 3원下, 9.27. 天長節 경축비 급금 15원下.

53) 『일기』 6.4. 경비질 봉차 상업회의소 月捐金 [40전]下 ; 6.22. 상업회의소 월연금 [40전]下 ; 8.4. 상업회의소 양8월분 급금 40전下 ; 8.8. 상업회의소 급금 30전下 ; 8.25. 상업회의소 월연금 양9월분 급금 40전下 ; 9.24. 陽10월분 상업회의소 월연금 40전下, 9.7. 拾粟會 연조금 20원下 ; 『매일신보』 1914.2.3. '開城'.

54) 『일기』 5.26. 경비질 봉차 朝鮮新聞代 25전下 ; 6.28. 朝鮮新報價 25전下, 7.29. 매일신보 陽8월至4朔料金 1원下 ; 9.1. 조선신문 陽9월분 給金 25전下, 5.18. 조선신문 廣告料 給金 15원下 ; 5.29. 開城新報 廣告料給 5원下 ; 6.29. 광고료 開城新聞社 給金 5원下 ; 8.1. 陽8월분 광고료 개성신문사 급금 5원下 ; 9.7. 廣告料 每日報 給金 64원下 ; 9.25. 광고료 朝鮮聞社 급금 70원下.

55) 『일기』 5.22. 경비질 봉차 印刷物品 日韓會社 畢給金 40원78전下, 6.5. 印刷物價 愛韓商會 給金 8원29전下, 7.11. 印刷物價 日韓會社 #郵換金 46원97전下, 8.5. 印刷物價 開城印刷所 급금 2원下, 9.1. 印刷料 廣告料合 崗本店 給金 9원95전下, 9.7. 인쇄료 愛韓商會 給金 65전下.

www.kci.go.kr

2) 경영

(1) 판매업

미쓰이(三井)물산 - 설립 초 개성사의 주요 업무는 판매 및 위탁판매업과 창고업, 대금업이었다. 그중 판매 및 위탁판매업은 미쓰이물산, 스탠다드석유, 영미연초회사 등에서 면포(金巾), 양목, 면사, 면화, 석유, 담배와 맥분, 설탕, 어물, 비료, 술 등을 공급받아 판매하는 일이었는데 가장 큰 비중을 점한 것은 미쓰이물산과의 거래였다. 그래서 이 회사 경성지점의 아사노 조시치(淺野長七) 지점장과 아마노 유노스케(天野雄之助) 지점장 대리,[56] 경성과 인천지점의 직원들이 수시로 방문하였다.[57] 〈표 2〉는 창립 첫해 미쓰이물산에서 공급받은 상품들이다. 주축은 면포로서 상품 이름이 A표[印], 삼표[三印], 개량표[改良印], 기린표[麒麟印], 해표[鰊印], 학표[鶴印], 희표[禧印] 등 다양하였다. 그중 압도적 비중을 점한 것은 미쓰이물산에서 공급받은 상품의 85%, 면포의 95%에 해당하는 A표 상품이었다.

〈표 2〉 미쓰이물산 취급 상품(1913.4~1914.4)

종별	품명	수량	금액	종별	품명	수량	금액
금건	A印金巾	1,435隻	209,152원	면화	면화	431俵隻	9,416원
	三印金巾	10칙	1,353원	맥분	寶船麥粉	855包	2,065원
	改良印金巾	30칙	4,269원		맥분	90포	214원
	麒麟金巾	400疋	1,428원		소계	945포	2,279원
	鰊金巾	1칙	109원	설탕	砂糖	66표	551원
	鶴印金巾	5칙	670원		白糖	99표	860원
	禧印金巾	20칙	2,866원		소계	164표	1,412원
	소계	1,520칙	219,847원	어물	鹽靑魚	50樌	954원
양목	孔雀玉洋木	250필	1,650원		염동	100궤	1,379원
	雙魚洋木	8칙	1,062원		소계	150궤	2,333원
	雙魚木	20필	125원	비료	肥料	360叭	1,151원
	소계	22隻	2,837원	총계			258,915원
면사	16平絲	250칙	17,668원				
	10平絲	30칙	1,973원				
	소계	280칙	19,640원				

자료 : 『타급장책』(1913-1914.4.6.). 비료는 『일기』 7월 7일자. 소수 이하 반올림.

56) 『일기』 5.16. 경비질 봉차 天野來時 人力車朔#[50전]하, 5.18. 天野來時 点食價 淺野 旅館給金 5원 40전下, 7.26. 淺野來時 人力車朔[2원80전]하, 7.26. 淺野來時 人力車朔[2원80전]하, 8.2. 崗本 接用

www.kci.go.kr

당시 미쓰이물산은 일본 최고의 무역상사로서 면포 수출업계의 큰손이었다. 이들은 1906년 2월에, 일본의 미에(三重)방적, 오사카(大阪)방적, 가나킨제직(金巾製織), 오카야마(岡山)방적, 덴마(天満)방적 등이 공동판매 조직으로 설립한 일본면포수출조합과 특약을 맺어 이들 회사가 생산한 면포(金巾)의 만주 판매를 독점하였다. 그리고 다음 달인 3월에는, 미에방적, 오사카방적, 가나킨제직이 공동판매 조직으로 설립한 대조선 수출카르텔조직인 산에이(三榮)면포수출조합과 특약을 맺어 이들 3사가 생산한 면포의 한국 판매권을 독점하였다.[58] 특약 조건은 1. 판매가격은 조합이 결정한다. 2. 판매 수수료는 1곤(梱 = 隻 = 20疋) 당 2원 50전이다. 3. 대금 결제기한은 1주일이다. 4. 3사가 생산하지 않는 1필(疋)의 무게 15파운드 이상의 일본 면제품은 취급하지 않는다. 5. 특약 기간은 1906년 7월부터 1년간이고 만기 후는 쌍방이 협의 결정한다. 6. 판매 수수료 중 1원을 신인금(信認金)으로 예치하며 만기 후 찾아간다. 7. 계약을 위반하면 특약을 즉시 정지 또는 해제하며 그 경우 신인금은 반환하지 않는다 등이었다.[59] 미쓰이물산은 이와 유사한 조건들로 조선 각지에 특약점을 두고 이들 회사의 면포를 위탁판매하였는데 개성사 역시 미쓰이물산과 특약점 계약을 맺은 것이다.

앞서도 언급하였던 대로 특약점 계약을 체결할 때는 취급 상품과 판매지역, 거래 조건(terms) 등을 미리 약정하였는데 그중 거래 조건의 경우 상품의 수도(受渡) 방법, 대금 결제 방법, 수수료율(commission rate), 판매 보증금과 신인금(信認金) 규정, 운임 및 관세, 광고비 등 비용 분담과 분쟁 중재 방법 등 다양한 항목이 포함되었다. 그리하여 거래 조건을 둘러싸고 본사와 특약점 간에 많은 협의가 거듭되었고 특약을 맺은 후에도 새로운 상황이 발생하거나 기존 조건에 불만이 생긴 경우 양쪽이 재협의하기도 하였다. 당시 개성사가 미쓰이물산과 어떤 계약을 맺었는지는 자세히 알기 어렵다. 〈자료 3〉은 1913년 8월 12일 개성사가 미쓰이물산(三井社)에서 A표 면포 20척을 1척당 144원 30전에 인수하고 그중 3척을 장성한(張成漢), 임광팔(林光八) 등에게 1척당 145원 50전에 외상으로 판매하며 작성한 회계기록이다. 그리고 〈표 3〉은 같은 매입 사례를 몇 가지 더 예시한 것이다.

[17원44전] 淺野接用[107원14전]下 夜明樓給金, 9.18. 料理價 夜明樓 給金 淺野 安川 接用 13원42전下, 9.17. 料理價 淺野旅館 給金 30원47전下.

57) 『일기』 9.13. 경비질 봉차 小盤 20介價[80전] 生栗 5斗[3원80전] 내출러 煙草 2匣[1원80전] 합금 6원40전下 京城三井社一同 下來時用, 9.13. 麥酒 1궤[9원60전] 人力車朔[8원60전] 합금 18원20전下 : 9.14. 生栗 4斗價.... 三井社人 下來時用 3원28전下 : 9.16. 料理價 嵩南館 給金 三井社人 來時用 舟橋 人力車朔 1원幷 13원下, 9.20. 小鹽 10개가 景善 仁川三井社人 來時用 40전下, 9.25. 料理價 嵩南館 給金 仁川三井社人 下來時用 4원20전下, 9.26. 仁川 三井社人 來時用 2원88전下.

58) 日本經営史研究所, 『稿本三井物産株式会社100年史』, 1978, 東京: 日本經営史研究所, 245~246쪽.

59) 稅田谷五郎, 「朝鮮綿布史(各論)」, 『朝鮮』 117, 朝鮮總督府, 1927, 41쪽.

www.kci.go.kr

〈자료 3〉『일기』 1913년 8월 12일[양력 9월 12일] A표[印] 면포[金巾] 관련 기록

三井社　入　A印金巾 20隻[1443] 代金 2,886원 陽 10월 23일限
A印金巾　捧次　同20隻[1443] 代金 2,886원
信認金　入　A印金巾 20隻[50] 代金 10원
三井會社　捧次　A印金巾 20隻[50] 代金 10원
手數料　入　A印金巾 20隻[1] 代金 20원
三井社　還給　A印金巾 20隻[1] 代金 20원
特別手數料　入　A印金巾 20隻 特別手數料[1] 代金 20원
三井社　捧次　A印金巾 20隻 特別手數料[1] 代金 20원
運賃條　入　A印金巾 20隻 [11] 代金 22원
三井社　還給　A印金巾 20隻 運賃條 [11] 代金 22원
農工銀行　還上　金 173원 25전
三井社　還給　A印金巾 20隻 關稅給金 173원 25전 廣安號給
A印金巾　入　3隻[1455] 代金 436원 50전
張成漢　捧次　A印金巾 1隻 代金 145원 50전
林光八　捧次　A印金巾 1隻 代金 145원 50전
林弘道　捧次　A印金巾 半隻 代金 72원 75전
秦柄三　捧次　A印金巾 半隻 代金 72원 75전

〈표 3〉 개성사의 A표[印] 면포[金巾] 매입 사례

월일	매입			신임금	수수료	특별 수수료	운임	관세	비고
	수량	단가	금액						
8. 4.	30척	144.3원	4,329원	15원	30원	30원	33원		京城來
8.12.	20척	144.3원	2,886원	10원	20원	20원	22원	173.25원	
8.12.	10척	144.3원	1,443원	5원	10원	10원	11원	86.62원	汗浦
8.12.	5척	144.3원	721.5원	2.5원	5원	5원	5.5원	43.31원	金郊
8.20.	10척	144.3원	1,443원	5원	10원	10원	11원		汗浦
8.20.	30척	144.3원	4,329원	5원	15원	30원	33원		
8.20.	50척	144.3원	7,215원	5원	25원	50원	55원		

자료 : 『日記』.

www.kci.go.kr

이에 따르면 개성사는 미쓰이물산과 거래하면서 A표 면포 1척(=20필) 당 매매차익 1원 20전(145원 50전 - 144원 30전)과 신인금 50전, 수수료 1원, 특별수수료 1원, 운임 1원 10전을 받았다. 그중 신인금 50전과 특별수수료 1원은 미쓰이물산에 예치하고 수수료 1원과 운임 1원 10전은 미쓰이물산에 면포 대금 조로 상환하였다. 상품 가격의 6%(=173.25원/2,886원)에 해당하는 관세 173원 25전(20척분)은 개성사가 농공은행 계좌에서 찾아 전액 지급한 것으로 보아 개성사가 부담한 것 같고 후일 산하의 거래처에 전가하였을 것이다. 대금 결제기한은 A표 면포의 경우 40일 내외였던 것 같다. 〈자료 3〉에서 보듯이 1913년 8월 12일(양력 9월 12일)에 A표 면포 20척을 들여오면서 41일 후인 양력 10월 23일까지 갚기로 한 것 등에서 그렇게 생각되며 그 외 삼표[三印] 면포는 45일, 개량표 면포는 40일 정도였다.[60] 개성사는 미쓰이물산을 통하여 산에이(三榮)면포수출조합에서 취급하지 않은 와카야마(和歌山)방직의 학표(鶴印), 기린표 면포도 취급하였다.[61] 그리고 이렇게 들여온 면포를 개성은 물론 그 인근의 한포, 금교, 남천, 사리원, 신막, 철원 등지에 팔았는데 1913 회계연도의 매입자는 총 52명이었다. 박재학, 왕세각은 철원 사람이고 정두섭은 신막 사람이다. 〈표 4〉는 이들 52명에게 판 A표 면포이고 후술할 〈표 11〉의 면포는 그 외의 것까지 포함한 것이다. 이렇게 하여 개성사는 1913년 4월부터 1914년 4월까지 역시 후술할 〈표 15〉에서 보듯이 A표 면포 등을 취급하여 매매차익과 신인금, 수수료, 특별수수료, 운임 수입을 얻었다.

면사도 취급하였다. 10평사(平絲), 16평사 두 종류를 취급하였는데 16평사의 결제기한은 50일, 10평사의 결제기한은 45일 정도였다.[62] 면화도 취급하였다.[63] 백당, 황당도 취급하였는데 결제기한은 한 달 정도였다.[64] 맥분과 비료도 취급하였다.[65] 소금은 미쓰이물산 인천지점을 통해서 거래하였다. 결제기한은 60일 정도였다.[66]

---

60) 『일기』 1913.9.14.[10.13] 三井社 入 改良印金巾 10척[1403] 대금 1,403원 陽11월 21일한.

61) 『大阪每日新聞』 1915.2.5.

62) 『일기』 1913.8.23. 三井社 入 16平絲 50隻[725] 대금 3,625원 陽11月 13日限[52일], 1913.9.19. 16平絲 20척[73] 대금 1,460원 양12월 8일한[52일], 1913.9.20. 16平絲 10척[73] 대금 730원 양12월 2일한[45일], 1913.9.20. 10平絲 10척[69] 대금 690원 陽12월 2일한.

63) 『일기』 9.10. 棉花秩 捧次 棉花 47俵 出張料金 2원20전下, 9.16. 同 15척 土城車金 同給金 1원73전下, 9.19. 同 47척 運金[532전] 配朔[160전]下.

64) 『일기』 1913.9.17. 三井社 入 白糖 34俵[8원67전][294원78전], 黃糖 32표[8원][256원] 합 66표 대금 550원 78전 양11월15일限.

65) 『타급장책』 △肥料秩 捧次 癸丑 4월 26일 同 360叭 配朔金 11원20전, 7월 7일 同 360叭價 三井社給金 1,151원7전 [1,162원27전].

66) 『일기』 1913.9.8.[10.7] 인천삼정 입 염 100근입 32俵 升費 33원 78전 양 12월 5일한.

www.kci.go.kr

〈표 4〉 A표 면포(金巾) 판매처

이름	수량(척)	금액(원)	이름	수량(척)	금액(원)
남천(南川)	146.5	21,473.25	김기원	11	1,606.50
이원용	131	19,262	김순구	9	1,333.50
금교(金郊)	122	17,057	최군식	8.5	1,251.75
한포(汗浦)	70	10,305	임홍도	6.5	954.75
박재학	55	8,137.50	박용준	5.5	809.25
이회만	45.25	6,688.13	홍재륭	5.5	798.75
설예호	42.5	6,276.75	최성종	4.5	663.75
왕세각	40	5,910	변시영	4	588
정두섭	39.5	5,798.75	이영수	3.5	518.25
백학규	37.75	5,551.88	하재운	3.5	516.75
용기정	37	5,452.50	임제상	3.5	516.75
전명중	29.5	4,340.25	박기언	3.5	515.25
장응삼	25	3,687	임성규	3.5	513.75
김규섭	24	3,543	민영순	3.5	507.75
김종명	23.5	3,464.25	윤상형	3.5	507.75
김방식	22	3,243	임광팔	3	441
김창재	21	3,118.50	김윤수	3	436.5
장성한	19.5	2,847.75	홍재훈	2.5	363.75
전재훈	16	2,467	김인형	2	297
김영남	16.5	2,426.25	박의겸	2	276
장학량	16	2,370	조희연	1.5	220.5
황주동	15.5	2,283.75	우상옥	1.5	218.25
진병삼	15.5	2,277.75	방세형	1	148.5
김연광	15	2,194.50	이기재	1	148.5
정용구	14.5	2,147.75	윤동규	1	148.5
김창훈	13	1,917	마명규	0.5	38.3

자료 : 『타급장책』. 1척(隻) = 20필(疋).

스탠다드석유회사 - 개성사는 스탠다드석유회사와도 특약을 맺었다. 한국에 석유를 처음 들여와 판 것은 1884년 하반기 일본 상인들이었다. 일본을 거쳐 수입하였는데 주로 조명용으로 썼으므로 양철제 칸데라(일본제 램프)를 함께 보급하였다. 처음에는 미국 스탠다드석유의 솔표(松印) 석유를 들여왔고 1889년부터 러시아산 석유를 들여오고 1896년에는 일본 에치고(越後) 산 석유도 수입하였다. 그러나 품질이 미국산을 따르지 못하여 1886년부터

www.kci.go.kr

10년간 고가의 미국산 솔표가 전체 시장의 97%를 점하였다. 조명이 밝고 냄새와 매연이 적은 데다[67] 견고하고 운반이 편한 양철제 용기를 보급한 것도 큰 몫을 하였다. 이런 가운데 이 회사의 특약점을 운영할 계획을 세운 미국 자본의 타운센트상회는 1896년 인천 각국 조계지 바깥 10리의 월미도에 1만 1,700평방미터 규모의 석유 저장고 부지를 구입하고 뒤이어 석유 50만 상(箱)을 저장할 창고를 지었다. 가격변동이나 수입량 변화에도 석유를 안정적으로 공급할 기반을 갖춘 것이다. 그리하여 1897년 3월 스탠다드석유와 특약을 맺고 솔표 석유의 판매를 독점하였는데 판매는 지역별 판매상 조합을 통해서 하였다. 1900년 4월 인천솔표(松印)석유전매조합(후일 인천솔표석유조합으로 개칭)을 조직한 후 부산, 군산, 목포, 원산, 대구 등지에도 설치하였는데[68] 이들 조합은 스탠다드석유에 한 달 치 수익금 정도의 보증금을 예치하고 조합 차원에서 저장창고를 지어 석유를 보관하였다. 그리하여 판매량에 따라 수수료를 받았는데 저장고의 적재량이 500통을 넘지 않아 공급을 다 대지 못할 경우가 많았다. 타운센드상회로서는 전국의 석유조합에서 수수료를 거두어들이는 그야말로 '황금알을 낳는 거위' 같은 사업이었다. 1897년부터 15년간 스탠다드석유의 특약점 노릇을 해온 타운센드상회는 1912년 1월 인천의 스탠다드석유회사 사무실에서 불이 나며 특약이 종료되었다. 이제 스탠다드석유는 타운센트 같은 중간업자가 없어도 독자적인 운영이 가능하다고 보고 1913년부터 직접 운영에 나섰고 1915년에는 본사도 서울로 옮겼다.[69]

석유 대리점은 화재의 위험이 커 별도의 창고를 갖추어야 하였고 또 석유 자체가 고가라서 거액의 보증금을 내야 했다. 그래서 아무나 나설 수 없었다. 1913년에 서울에서 스탠다

67) 『황성신문』 1903.9.23. '특별광고. 송표석유방매조합 각점 근고' -제일 송표석유는.... 화광(火光)이 선명하고 유연(油烟)이 불다(不多).... 실내에 유연과 취기(臭氣)가 다하면 위생상에 대단히 유해..... 타표난 가금(價金)이 사소(似小)하나 유연이 대단하야 위생상에 유해..... 또 연기 다(多)한 거슨 가금이 사소하나 유기(油氣) 부족하니 소망(消亡)하기 대단하외다..... 제사 송표석유는 화기가 강하니 타표보듬 양목(量目)이 다(多)하고 또 점화하야 유량(油量)이 소망하기 소홈. 송표석유가 품질이 우등하고 타표에 비하야 유익한 거시 세계 각국 다 송찬(頌贊)하는 고로.... 근래 대한 각 항구에 유연과 취기가 과(過)한 석유 수래(輸來)하는 고로 대단이 유념하시고 차 송표를 자세이 관(觀)하야 매용(買用)하시믈 절망(切望)홈.

68) 원산에 설치한 솔표석유특약조합의 1904년경 규약(전문)은 여영섭, 「석유 이야기 -구한말시대의 석유 수입과 유통 1~2」, 『석유와 에너지』 304, 305, 대한석유협회, 2017.

69) 이상은 하지연, 「타운센드 상회(Townsend & Co.) 연구」, 『한국근현대사연구』 4, 한국근현대사학회, 1996 ; 정숭교, 「외국점포와 수입품의 등장」, 『서울2천년사 22, 근대서울의 경제와 개시』, 서울시시사편찬위원회, 2014 ; 『황성신문』 1910.2.18. '석유조합 간친' - 석유상으로 영업하는 한인 50여 명과 일본인 20여 명이 再昨日 하오 1시에 명월관에 會同하야 간친회를 설행하고 겸하여 석유상조합소를 조직.

www.kci.go.kr

드석유의 특약점을 맡은 것은 공익사(共益社), 기도(鬼頭)지점, 가지하라(梶原末太郎), 마에다(前田熊市), 구기모토(釘本藤太郎), 후쿠다(福田又)지점, 모리히사(森久)상점 등 서울과 인천의 거물급 일본인 기업가들이었다.[70] 스탠다드석유는 이들을 묶어 경성석유조합이라는 판매[放賣]조합을 만들었는데 당시 이 조합은 상당한 기금을 가졌을 뿐만 아니라 본사와 광고 및 수수료 문제 등을 협의하였다.[71] 조합은 시장 개척에도 나섰다. 1913년 12월 인천송함(松函)석유조합소의 기도 겐지로(鬼頭兼次郎)가 황해도 해주를 방문하여 그곳의 석유 취급점들과 대금 결제기한 등을 상의한 것이 그런 예였다.[72]

개성사는 1913년 4월에 일본 제일은행 경성지점에 3천 원에 달하는 거액의 보증금을 예치하고 따로 계약서를 작성하여 특약을 맺었다.[73] 보증금 예치 기간이 1년인 것으로 보아 계약 기간도 같았을 터인데 만기 후는 쌍방 협의로 연장 여부를 결정하였을 것이다.[74] 상품은 송표 즉 솔표와 승리표 두 종류였다. 1913년 현재 가격은 1상자(箱)에 솔표 3원 76전, 승리표 3원 54전이었다. 1913년 4월부터 1년간 솔표 2,804상(1만 594원), 승리표 3,422상(1만 2,169원) 등 총 6,225상(2만 2,763원)을 들여왔는데 내역은 〈표 5〉와 같다.

---

70) 『매일신보』 1913.3.6. '石油新組合성립' - 경성석유조합은 과반 분요로.... 해산되었는데 스탄다도석유회사에서는 共益社, 鬼頭支店, 梶原末太郎, 前田熊市, 釘本藤太郎, 福田又支店, 森久商店을 대리상으로 지정하야 4일에 新組合을 조직하고 종래 대리상의 수수료를 減下하여 일반 매가 1箱에 5전씩 減價하기로 결정.

71) 『매일신보』 1913.5.11. '京仁産業團體狀況' - 스탄다도石油專賣京城組合은 적립금 1만 5천 원, 순익금 7,500원 ; 『매일신보』 1913.3.6. '石油新組合성립' ; 『황성신문』 1903.9.23. '特別廣告'.

72) 『매일신보』 1913.12.4. '매매 계약의 不成' - 先月 27일 인천송함(松函)석유조합소와 동아연초조합소 사무원 鬼頭兼次郎, 河野竹之助가 來海하여 내선인 商民과 商會를 開議하고 석유는 25일, 궐연초 중 朝日과 珊瑚票는 30일 한하여 대금을 還償하기로 連*契約을 청한 즉 그 물가 변제 시기의 단축함을 인하여 선인 측에서는 일제히 무매(貿買)치 않기로 결의하고 내지인에서는 佐藤, 田邊, 桶口 등 3인만 승낙하였다.

73) 『일기』 4.30. 석유회사 봉차 保證金 제일은행 경성지점預 定期 3,000원下 ; 『타급장책』 第一銀行 京城지점 捧次 석유회사 保證金條 陽6월14일限 정기예금 3,000원 ; 『일기』 5.27. 경비질 봉차 石油小賣契約書 仁川送郵料金 18전下, 7.23. 石油會社 契約書 小包料金 12전下.

74) 이런 저런 이유로 본사에서 수시로 사람이 내려왔다. 『일기』 6.28. 경비질 봉차 석유회사 來人接 酒價 人力車朔 合金 2원 60전下.

www.kci.go.kr

〈표 5〉 석유 구입 내역

구분 / 연월	솔표		승리표		합계	
	수량	금액	수량	금액	수량	금액
1913. 5	125箱	470원	168箱	595원	293箱	1,065원
1913. 6	10	38원	66	234원	76	271원
1913. 7	21	79원	15	53원	36	132원
1913. 8	188	707원	203	718원	391	1,426원
1913. 9	229	861원	397	1,405원	626	2,266원
1913. 1	157	590원	462	1,635원	619	2,226원
1913.11	563	2,117원	423	1,497원	986	3,614원
1913.12	429	1,612원	501	1,781원	929	3,393원
1914. 1	532	2,025원	513	1,841원	1,045	3,866원
1914. 2	129	491원	162	582원	291	1,073원
1914. 3	421	1,604원	512	1,827원	933	3,431원
계	2,804	10,594원	3,422	12,169원	6,225	22,763원

자료 : 『타급장책』. 소수 이하 반올림.

개성사는 스탠다드석유 제품을 취급하면서 수수료와 창고료, 누료(漏料)를 받았다. 한 달에 한 번꼴로 정산하였는데 〈자료 4〉는 1913년 7월 29일의 정산 기록이고, 〈표 6〉은 설립 첫해의 해당 사항을 모은 것이다. 1상자(箱 = 2筒)의 수수료는 솔표 15전, 승리표 10전이고, 누료(漏料)는 둘 다 1전씩이며, 창고료는 2전씩이다. 이 외에 상여금과 제3자 요금을 받았는데 상여금은 실적에 따라서 받았을 터이고[75] 제3자 요금은 정확한 의미를 알 수 없으나 인근 지역에 석유를 중개하고 받은 대가인 듯하다.

75) 쇼와(昭和) 연간에 평양의 고달수가 운영한 天元堂藥房은 자사 약품의 취급점포를 일수(一手) 대리점, 통상(通常) 대리점, 특약점으로 나누었다. 그중 일수(一手) 대리점은 관할 범위가 1군(郡) 일원으로 가장 넓고, 첫 회의 주문액도 300~1,000원으로 액수가 가장 큰 점포였다. 수수료는 대리점이 낼 약값의 일부를 '할인'하여주는 방식으로 지급하였고 실적이 특별히 좋은 경우는 연말에 '상여금'을 지급하였다. 〈平壤 天元堂藥房 取引店 設定에 對한 規正〉 참조.

www.kci.go.kr

〈자료 4〉『일기』1913년 7월 29일 석유 관련 기록

石油手數料	入	松票 225箱[15전] 33원 75전, 勝 186箱[10전] 18원 60전 합 52원
石油倉庫料	入	35전上
石油漏料	入	송표 225상, 勝票 130箱, 355箱 [2전] 代金 7원 10전上
石油會社	還上	송표 225상, 승표 186상 合 411箱[1전] 代金 4원 11전上
石油會社	還給	右石油運賃條 邊計金 58원 32전上
手數料	捧次	松[225], 勝[186] 合 411箱價中 右計 農銀換送金 1,504원 44전下
張學亮	入	右換料 農銀給金 75전下
石油會社	捧次	勝票石油 56箱 配達料金 1원96전

〈표 6〉 석유 수수료, 漏料, 창고료 내역

일자	석유(箱)			수수료	누료(漏料)	창고료	
	솔표	승리표	합계			수량	금액
1913. 6.12	125상	168상	293상	35.55원	2.93원	40상	0.80원
1913. 7.29	225	186	411	52.35	4.11	355	7.10
1913. 9.16	168	268	436	57.00	4.36	100	2.00
1913.10.18			766	90.30	7.66	150	3.00
1913.11.17			882	104.15	8.82	546	10.92
1913.11.23				140.75[1)]			
1913.12.20			569	67.70	5.69	373	7.46
1914. 1.20	1,302	1,762	3,064	128.66[2)]			
1914. 1.20	242	266	508	62.90	5.08	508	10.16
1914. 2.21			521	65.50	5.21	465	9.30
1914. 3.20			951	121.40	9.51	951	19.02
1914. 4. 6				3.85[3)]			
계			8,401	930.11	53.37	3,488	69.76

자료 :『타급장책』. 1) 1913도 상여금, 2) 제삼자요금(第3者料金), 3) 한포(汗浦) 고가조(高價條).

석유는 개성에서 소매로도 팔고 금교, 남천, 한포, 신막, 문산 등지에 도매로도 넘겼다. 금교, 남천에 석유창고를 두었는데 금교 창고는 일본인 쓰즈키 부스케(都築武助)에게 설계와 시공을 맡겼고 세창양행 등에서 함석, 아연판, 목재 등을 구입하여 지었다.[76)] 운송은 조

76)『일기』5.26. 석유창고 봉차 함석 200張價 세창양행 給金 190원下 ; 6.6. 함석 200張 운임[780전] 配朔[1] 합 大同給金 8.2원下 ; 8.1. 田測量製圖料金 得鍾給金 석유창고용 7원下 ; 8.3. 田價先給 이윤식 去金 100원下 ; 8.8. 田價畢給 이윤식給又金 300원下 ; 8.9. 田口條 이윤식 이규홍 거금 8원下

www.kci.go.kr

일조(朝日組, 아사히구미) 운송회사 등에 맡겼다.[77] 인화성이 높은 물질로 화재위험이 상존하여 소방비를 따로 냈다.[78] 매각처는 장학량, 이국형 등 〈표 7〉과 같다. 장학량은 한포(汗浦) 사람이다.[79]

〈표 7〉 석유 매각 사례

구분 / 거래처	승리표		솔표		전체	
	수량	금액	수량	금액	수량	금액
장학량	1,121상	4,055원	76상	288원	1,197상	4,343원
이여좌	592	2,103	91	343	683	2,446
이국형	56	198	336	1,263	392	1,462
정용구	264	935	11	41	275	977
용기정	223	798	23	88	246	886
설예호	188	707	0	0	188	707
신막(新幕)	56	201	117	446	173	647
백학규	112	399	42	159	154	558
김연광	0	0	135	474	135	474
황주동	84	299	40	151	124	450
정두섭	22	79	79	298	101	377
하재운	50	177	45	169	95	346
이종영	40	142	30	113	70	254
전재훈	44	161	13	49	57	210
장석규	40	144	15	57	55	201
이회만	55	196	0	0	55	196
임성규	15	53	35	132	50	185
이원용	19	67	22	75	41	142
임제상	34	122	1	4	35	126
김종명	32	113	0	0	32	113
승전점	17	61	8	30	25	92
홍재륭	18	65	5	19	23	84
김인동	8	29	12	46	20	74

; 8.15. 亞鉛板 300枚價 世昌 廣安去金 249원50전下 ; 8.29. 金郊用 木材 治工廣谷 給金 15원下 ; 9.14. 金郊 석유창고 日本 手 11월役價 都築給金 16원50전下 ; 9.15. 金郊用 雜費 右人計金 28원79전下 ; 9.16. 金郊 倉庫用 木材 鉛板 車金 同給金 8원88전下 ; 9.28. 建築料 都築 給金 592원50전.

77) 『타급장책』 朝日組 癸丑 6월 16일 石油 648箱 開城 汗浦 汶山 分條 運賃 78원 85전, 7월 3일 同物 56箱 汗浦條 運賃 8원 42전, 8월 1일 同 395箱 開城條 運金 45원 48전.

78) 『일기』 6.28. 경비질.... 봉차 消防費 [3원]下.

79) 『대한매일신보』 1910.5.12. '義捐廣告', 4.30. '韓英進級'.

www.kci.go.kr

구분 / 거래처	승리표		솔표		전체	
	수량	금액	수량	금액	수량	금액
손봉상	0상	0원	12상	46원	12상	46원
홍재훈	0	0	7	27	7	27
최성종	2	7	3	12	5	18
김방식	2	7	3	12	5	18
전명중	3	11	2	8	5	18
조희연	0	0	3	11	3	11
박용준	2	7	1	4	3	11

자료 : 『타급장책』.

영미연초회사 - 개성사는 영미연초회사와도 특약을 맺었다. 이 회사는 1902년에 미국의 아메리카담배회사(美國烟草公司, American Tobacco Co.)와 영국의 제국담배회사(帝國烟草公司, Imperial Tobacco Co.)가 합자하여 설립한 자본금 2,400만 달러의 초대형 기업이었다. 아시아, 아프리카에 공장을 가진 다국적 기업으로서 런던에 본점을 두었으나 출자액과 이사의 2/3를 미국 측이 점하였으며 담배왕 듀크(James Buchanan Duke, 1856-1925)가 운영을 총괄하였다. 당초에 미국산 궐련을 중국에 들여오다가 1903년 상해에 중국 최초의 담배공장을 설립하였고 1905년에는 중국 산둥에 미국 담배를 이식 재배하기 시작하였다. 1906년경 한국의 주요 도시에 판매점을 설치하였고 1909년에는 인천에 공장을 지어 상권을 넓혔다. 당시는 일본 정부도 담배 수출에 적극 나선 때였다. 일본은 1904년에 연초 전매제를 시행한 데 이어 1905년에는 일본연초수출회사를 만들어 담배 수출에 나섰고 그 후 동아연초주식회사를 설립하여 1909년 서울에 공장을 세웠다.[80]

이에 영미연초회사는 다양한 방법으로 판로 확장에 나섰다. 1913년 6월에는 서울 태평정 영미연초회사에서 신문광고를 내고 광고의 교환권을 오려오면 칼표(刀票) 담배를 선물로 주는 이벤트를 하였다.[81] 특약점 확대에도 적극 나섰다. 1914년 4월 서울의 영미연초회사가 황해도에서 특약점 확대에 나서 한 달 만에 해주에 10곳, 옹진군 마산면에 6곳, 장연군 속달면 태탄리에 5곳 등의 중매(中賣) 특약점을 개설한 것이 그런 예였다.[82]

80) 이영학, 『한국 근대 연초산업 연구』, 신서원, 2013, 128, 176쪽 ; 동, 「담배의 사회사」, 『역사비평』 22, 역사비평사, 1991, 126~128쪽 ; 廣江澤次郎, 「朝鮮煙草界의 實狀과 對支發展策」, 『赤心一片』, 京城: 1915, 22~26쪽.

81) 『매일신보』 1913.6.24. '刀票 烟草 무료 증정'.

82) 『매일신보』 1914.5.23. '지방통신. 황해도'.

www.kci.go.kr

〈표 8〉 영미연초회사 담배의 월별 구입량(1913.6~1914.4)

제품명	단위	6	7	8	9	11	12	2	3	4	계
金魚	궤(櫃)		10	5	9		3				27
林檎	상(箱)			1							1
刀票	궤			2	3	2	1	2	1	2	13
自行車	궤			2	2						4
鶯票	궤			14	5	7	8				34
鸚鵡	궤			7	8	1		2	4		22
黃鐵煙	통			49	1						50
靑鐵煙	통				1						1
등화표	궤					5	11			8	24
화표							1				1
50본입정	통										-
텀플빠	통						60	5	45	10	120
연표	궤								1	3	4
양운	궤								1		1
각종	상	7									7
금액(원)		331	250	705	814	361	414	269	130	435	3,709

자료 : 『타급장책』. 소수점 이하 반올림. 제품명은 개성사의 장부상 이름임. 그중 金魚와 林檎의 한글 상표명은 붕어표와 능금표였다. Howard Cox, 앞의 책, 2000, plate 19 참조.

이런 가운데 1913년 6월 개성사는 영미연초회사에 판매 보증금 500원을 내고 특약점 계약을 맺었다.[83] 그리하여 금어(金魚, 붕어)표, 임금(林檎, 능금)표, 도(刀)표, 자전거(自行車)표 등 여러 브랜드의 담배를 취급하였는데 내역은 〈표 8〉과 같다. 개성사는 이 회사에서 판매 수수료로 '할인금'과 '보료금'(保料金)을 받았다.[84] 〈자료 5〉는 『타급장책』에서 해당 사항을 옮긴 것이다. 수수료로 매달 10원 남짓한 금액을 받은 것 같고 〈표 15〉에서 보듯이 연간 수익은 197원이었다. 그 후 영미연초회사는 일제가 1909년에 연초세법을 제정하여 연초 제조세와 소비세를 부과한 데 이어 1914년에 연초세령을 공포하여 연초 경작세와 판매세까지 부과하자 결국 가격경쟁력을 잃고 중국으로 철수하였다.[85]

83) 『일기』 1913.6.22. 英美煙草會社 봉차 연초판매保證金 500원下.

84) 할인은 앞 주 75 참조.

85) Howard Cox, *The Global Cigarette : Origins and Evolution of British American Tobacco 1880-1945*,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2000, 159쪽 ; 이영학, 앞의 책, 2013, 177~179쪽 ; 강경락, 「1930년대 미국종 엽연초 재배와 중국 농가경영」, 고려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1988.

www.kci.go.kr

〈자료 5〉『타급장책』의 연초수수료 관련 기록

△煙草手數料　入　癸丑 11월 11일 割引金 82원 41전, 13일 陽 10, 11兩朔條金 20원, 12월 7일 금 10원, 11일 금 42원 25전 [154원66전]
內 계축 12월 30일 移錄金 154원 66전下

△煙草手數料　入　甲寅 1월 7일 大正 2년 12월분 금 9원, 18일 大正 3년 1월분 保料金 10원, 2월 14일 陽 1월분 금 10원 43전, 24일 陽 2월분 금 15원 18전, 3월 29일 陽 3월분條金 18원 30전, 在 [42원 24전]
內 甲寅 1월 21일 금 12원 13전 5리, 4월 6일 移錄金 8원 53전 5리, 同 移錄金 42원 24전 下

대일본맥주회사 - 개성사는 대일본맥주(지금의 삿포로맥주)와 특약을 맺어 맥주와 청량음료인 시트론(citron)을 들여와 팔았다. 거래량은 〈표 9〉와 같다. 맥주회사에서 1궤에 20전의 수수료를 받았고 관세와 운임은 개성사가 부담하였다. 〈자료 6〉은 타급장책의 관련 기록 일부를 옮긴 것이고 〈표 9〉는 같은 사례를 모은 것이다. 맥주의 결제기한은 약 8주였다.[86] 맥주의 관세율은 1궤 가격 9원 42전 당 72전으로 7.64%였다. 25궤의 관세는 18원인데 은행을 통해 보냈다[換送]. 맥주 25궤의 대금 235원 50전 가운데 관세를 뺀 217원 50전은 9월 21일 농공은행에서 찾아 맥주회사로 보냈다.

〈자료 6〉『타급장책』의 맥주수수료 관련 기록

8월 6일	買收坪	捧次	支拂手形 農銀行給金 麥酒會社給 217원 50전下
9월 8일	麥酒會社	入	同 25궤[9원 42전] 대금 235원 50전 陽12月 1日限
	麥酒秩	捧次	同 25궤[9원 42전] 대금 235원 50전
	手數料	입	맥주 25궤[20] 대금 5원
	맥주회사	봉차	맥주 25궤 手數料 [20] 대금 5원
9월 10일	麥酒會社	還給	맥주 25궤 關稅條 銀行換送金 18원下
9월 13일	맥주질	入	동 1櫃價 上金 9원 60전 上
9월 14일	맥주질	입	동 1櫃價 上金 9원 60전 上
9월 15일	맥주질	입	동 1櫃價 上金 9원 60전 上
9월 16일	맥주질	봉차	동 25궤 配朔 同給金 1원 60전 下
9월 21일	農工銀行	환상	금 217원 50전
9월 21일	매수평	봉차	맥주회사 手形지불 右金 217원 50전

86) 『일기』 1913.9.8.[10.7] 맥주회사 입 同25櫃 [9원 42전] 대금 235원 50전 양12월 1일한.

www.kci.go.kr

〈표 9〉 맥주회사 거래

일자	종류	수량 (궤)	단가 (원)	금액 (원)	기한 (월일)*	수수료 (원)	관세 (원)	배삭금 (원)
1913.9. 8	맥주	25	9.42	235.5	12. 1	5	18	1.6
1914.2. 4	맥주	25	9.42	235.5	5. 5		18.75	1.6
1914.3.27	맥주	25	9.42	235.5			31.5	
〃	시트롱	45	48	216				

자료 : 『타급장책』. * 양력.

기타 - 재등(齋藤)상점, 중전점(中田店), 부리호(傅利號) 등과도 거래하였다. 〈표 10〉이 내역이다. 재등상점과는 맥분과 면사를, 중전점과는 면사를, 부리호와는 면화와 목모본단(木毛本緞)을 거래하였다. 동양직포회사에서 만든 월성인(月星印)도 취급하였다.[87]

〈표 10〉 기타 상품의 거래 상황

매입처	종류	일자	상품명	수량	단가	금액
齋藤商店	맥분	1913.10.11	寶船印	70包	2.45원	171.5원
		1913.10.11	榮金印	80포	2.43원	194.4원
	면사	1914. 2. 1	10平絲	5隻	66.5원	332.5원
		1914. 2.30	10평사	15척	63.0원	945.0원
		1914. 2.30	10吉絲	5척	61.5원	307.5원
		1914. 3.25	10평사	20척	63.0원	1,260.0원
	옥양목	1914. 2. 2	九桃花玉洋木	3樻	335.0원	1,005.0원
中田店	면사	1914. 2. 1	16王絲	6척	71.7원	429.0원
		1914. 3. 2	16왕사	20척	69.6원	1,392.0원
		1914. 3.15	16東絲(本絲)	5척	69.0원	345.0원
		1914. 3.21	16왕사	5척	68.8원	344.0원
傅利號	면화	1913. 9.10	면화	47俵	22.2원	1,066.9원
	木毛本緞	1913. 9.10	五福壽票	1궤	183.1원	183.1원

자료 : 『타급장책』.

술은 평양의 한호상회와 거래하였다. 평양의 이름난 주조회사로서 조선식 소주, 누룩(曲子), 밀홍로주(蜜紅露酒), 이감주(梨甘酒) 등을 생산하였는데 일본인 다나카 슈스케(田中周助)가 사장이었다.[88]

87) 『神戶新聞』 1917.12.25.

88) 『매일신보』 1916.7.20. '漢湖商會 대확장', 1913.12.27. '大正博과 出品物.'

www.kci.go.kr

개성사는 이상의 상품들을 총 64곳의 거래처에 판매하였다. 〈표 11〉은 이들의 면포, 석유를 비롯한 상품거래 총액을 순서대로 적은 것이다.[89] 거래처는 크게 세 종류였다. 첫째는 박재학, 왕세각, 장응삼처럼 주로 면포를 거래한 상인들이다. 둘째는 이여좌, 이국형처럼 주로 석유를 거래한 상인들이다. 셋째는 장학량처럼 면포, 석유 등을 모두 취급한 상인들이었다.

〈표 11〉 거래처별 거래 금액

이름	면포(金巾)	석유	총액	이름	면포(金巾)	석유	총액
이원용	23,556원	142원	23,698원	이국형		1,462원	1,462원
남천(南川)	21,473		21,473	김윤수	772원		1,420
금교(金郊)	17,057		17,057	홍재륭	799	84	1,269
한포(汗浦)	10,305		10,305	변시영	588		1,188
정두섭	5,799	377	8,237	임홍도	955		955
박재학	8,138		8,138	하재운	517	346	926
김창재	3,548		7,220	박용준	809	11	859
설예호	6,277	707	7,086	박기언	515		729
민영순	793		7,000	임성규	514	185	699
이회만	6,688	196	6,884	최성종	664	18	685
장학량	2,370	4,343	6,713	임제상	517	126	679
백학규	5,552	558	6,487	신막(新幕)		647	647
용기정	5,453	886	6,338	이영수	591		629
왕세각	5,910		5,910	홍재훈	364	27	530
전명중	4,340	18	4,359	윤상형	508		508
김규섭	3,689		4,209	임광팔	441		441
전재훈	2,629	210	3,814	방세형	149		301
장응삼	3,687		3,687	김인형	297		297
김종명	3,464	113	3,654	이종영		254	254
김연광	2,195	474	3,510	조희연	221	11	232
김방식	3,311	18	3,431	장석규		201	220
정용구	2,148	977	3,124	우상옥	218		218
김영남	2,426		2,999	이기재	149		149
황주동	2,358	450	2,867	윤동규	149		149

89) 〈표 11〉의 왕세각은 개성 출신으로 철원에서 소매상을 하였다. 김규섭은 개성에서 주단포목상을 하였고, 장성한은 개성에서 소매상을 운영하며 개성삼업조합원과 경성주식회사원을 겸무하였다. 김창훈도 개성에서 소매상을 하며 조선연초주식회사의 제품을 특약판매하였다. 內外商品新報社編輯部編, 앞의 책, 1915, 128, 85, 88, 87쪽.

www.kci.go.kr

이름	면포(金巾)	석유	총액	이름	면포(金巾)	석유	총액
장성한	2,848원		2,848원	민영덕	81원		116원
김기원	1,841		2,516	勝田店		92원	110
이여좌		2,446원	2,446	임진홍			77
박의겸	892		2,438	김인동		74	74
진병삼	2,278		2,302	西村광성당			53
김순구	1,334		2,097	손봉상		46	46
김창훈	1,997		2,079	中島店			38
최군식	1,252		1,937	마명규	38		38

자료 : 『타급장책』.

개성사는 1913년 10월부터 '소매부'를 두고 이들 상품을 소매로도 팔았다. 〈표 12〉가 내역이다.

〈표 12〉 소매부 취급 상품

종별	품명	수량	금액	종별	품명	수량	금액
면포	A印	28.3隻	4,168원		소계	隻	2,734원
	鶴印	3.15척	423원	면사	16平絲	12.5척	887원
	月星印	5.75척	795원		10평사	4.05척	282원
	改良印	4척	578원		16정사	0.5척	35원
	麒麟	3.75척	289원		소계	15.05척	1,204원
	鰑	1.6척	194원	맥분	寶船맥분	90包	217원
	禧印	2척	285원		맥분	39포	87원
	三印	0.3척	41원		소계	129포	304원
	B인	0.65척	94원	설탕	황당	6표	49원
	소계	49.5척	6,867원		백당	9표	81원
면화	면화	76隻	1,708원		소계	15표	130원
양목	馬軍人洋木	3.95척	620원	석유	승리표	146.5상	523원
	松雀木	7척	614원		솔표	138상	526원
	雙魚洋木	3.75척	502원		소계	284.5상	1,049원
	공작옥양목	2.5척	335원	총계			13,996원
	구도화옥양목	1궤	335원				
	목보본단	15필	90원				
	*布	184필	238원				

자료 : 『타급장책』.

www.kci.go.kr

(2) 창고업

개성사는 개성에 25평과 8평짜리 창고 2동이 있었고,[90] 금교(金郊)와 남천(南川)에도 창고를 가지고 있었다.

(3) 대금업

개성은 오랜 상업 도시답게 근대금융 제도가 들어서기 전부터 금융업이 발달한 곳이었다. 개성 고유의 상사제도인 시변 제도를 발달시킨 게 단적인 예였다.[91] 그런 전통 위에서 개성사도 그곳의 영신사 등이 그랬듯이 대금업을 하였다. 〈표 13〉은 개성사와 거래한 차입자들의 이름과 액수이다. 김원배, 공성학 등 개성의 이름난 자산가를 비롯하여 총 62명에게 1년간 연(延) 12만 5,602원을 대부하였다.[92] 그중에는 박의겸처럼 개성사와 특약을 맺어 봉산군 사리원에 '개성사 특약점'을 내고 개성사의 자금으로 대금업[債商]을 한 이도 있었다.[93] 대부 기간은 다양하였다. 대출 시에는 어음(手形) 또는 수표(票)를 받았는데 일부는 자기명의의 어음을 냈고, 일부는 타인 명의의 어음을 제시하였다. 당연히 이자도 받았다. 내역은 〈표 14〉와 같다.

이상의 판매업, 창고업, 대금업으로 개성사는 1913년 4월부터 이듬해 4월까지 한 회계연도 동안 〈표 15〉의 이익을 얻었다. 창업 후 1년간 총 1만 8,559원의 이익을 얻었는데 그중 이자 수익이 49.9%인 9,268원이고 상품판매이익은 50.1%인 9,291원이었다. 상품의 대종은 전체 이익의 41.0%를 점한 면포이고 다음은 5.7%의 석유와 면사, 담배 등의 순서였다. 면포 수입은 매매차익 2,430원과 기타 신인금 730원, 수수료 1,460원, 특별수수료 1,460원, 운임 1,533원으로 구성되었다. 면포 중에서도 압도적 비중을 점한 것은 A표 면포였다.

90) 『매일신보』 1915.12.5. '시내창고수(개성)'.

91) 전성호, 앞의 글, 2011c ; 양정필, 앞의 글, 2012, 2017.

92) 김득형, 김규장은 개성상업회의소 상의원이었다. 장성한은 개성에서 소매상을, 윤동식은 대동운송부를, 윤덕원은 만물상회를 경영하였다. 內外商品新報社編輯部 編, 앞의 책, 1915, 72, 85, 94, 86쪽.

93) 內外商品新報社編輯部 編, 앞의 책, 1915, 97쪽.

www.kci.go.kr

〈표 13〉 채급자(債給者) 명단

금액(延)	이 름
1만 원 이상	김원배 11,276원
5천 원 이상	공성학 8,439원, 김재철 6,652원, 박의겸 5,834원, 김종호 5,109원
3천 원 이상	정인근 4,768원, 박용현 4,717원, 김득형 4,624원, 박치동 4,137원, 김동수 3,923원, 임제상 3,489원, 조성준 3,401원, 윤의순 3,334원, 하재운 3,098원, 마종린 3,093원, 김진구 3,088원
1천 원 이상	조정규 2,614원, 김용권 2,352원, 박의정 2,095원, 민영덕 2,069원, 현재혁 2,060원, 우상옥 2,055원, 이백규 2,050원, 이여좌 1,991원, 장학순 1,972원, 한명석 1,837원, 김규장 1,705원, 장성한 1,577원, 최영록 1,570원, 이동식 1,457원, 최기조 1,342원, 이국형 1,306원, 김규섭 1,247원, 김현승 1,198원, 김은영 1,133원, 최기홍 1,050원, 김응선 1,035원
1천 원 미만	황주동, 구장회, 이기황, 임지영, 윤동식, 조동명, 진복렴, 김근용, 김주형, 김영린, 김세경, 한병호, 설인호, 손계호, 조동운, 박대현, 이종영, 하승한, 장익환, 김광현, 김길상, 김현종, 윤덕원, 강본언태랑, 현재익

자료 : 『타급장책』.

〈표 14〉 대금(債給)액과 이자 수입

연월	채급액	변봉질	연월	채급액	변봉질
1913. 4.	2,300원	533	1913.11.	6,897원	2,351
1913. 5.	29,152원	407	1913.12.	31,230원	3,981
1913. 6.	5,228원	148	1914. 1.	783원	123
1913. 7.	2,684원	41	1914. 2.	4,777원	2,328
1913. 8.	28,322원	1,122	1914. 3.		258
1913. 9.	9,414원	358	1914. 4.		137
1913.10.	4,816원	704	계		12,491

자료 : 『타급장책』.

www.kci.go.kr

〈표 15〉 이익질

	상품명	1913.4.20~12.30		1914.1.1~4.6		총계(%) 금액
		수량	금액	수량	금액	
면포	A印금건	1,101척	2,129원		45원	2,174원
	B印금건	10척	44			44
	개량인금건	29척	63			63
	3印금건	10척	28			28
	月星금건	800필	60		33	93
	鰒금건	1척	4			4
	鶴印금건				1	1
	禧印금건				12	12
	花鳥금건				11	11
	各票 신인금	1,155척	578	305척	153	730
	각표 수수료	1,155척	1,155	305척	305	1,460
	각표 특별수수료	1,155척	1,155	305척	305	1,460
	각표 運賃	1,101척	1,211	293척	322	1,533
	소계		6,427		1,187	7,614(41.0)
면사	16평사	141척	120		43	163
	10평사	10척	16		4	20
	16正絲				56	56
	10정사				154	154
	16王絲				5	5
	소계		136		263	399(2.1)
양목	松雀木				55	55
	雙魚洋木				3	3
	소계				59	59
碎米					1	1
석유 수수료			612		441[1]	1,052(5.7)
맥주 수수료			5			5
연초 수수료			155		42	197
			75[2]			75
이자			7,702[3]		1,566	9,268(49.9)
총계			109[4]			109
			15,002		3,557	18,559(100)

자료 : 『타급장책』 '이익질'. 1) 석유 수수료, 누료, 창고료의 합계임. 2) 소매부조(條), 3) 4월 6일, 4) 甲寅 4월 6일 109원 22전下.

www.kci.go.kr

창립 초 개성사는 1차 세계대전 발발에 따른 전시 호황으로 크게 성장하였다. 창립 첫해인 1913년에 미쓰이물산, 스탠다드석유와 거래한 액수가 각각 25만 원, 2만 원이었으나 1917년에 60만 원, 10만 원으로 늘었다거나, 매년 4월에 결산한 배당률이 1916년 1할, 1917년 1할 5전, 1918년 2할로 계속 증가하였다고 한데서 그렇게 생각된다.[94] 자본금도 1914년 4월 10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늘렸고, 1918년 6월에는 30만 원에서 50만 원으로 늘렸다.[95] 그러나 개성사는 그 후 여러 면에서 변화를 맞은 것 같다. 그중 하나는 이들의 최고 주력 상품이던 면포 거래방식의 변화였다. 앞서 말한 대로 개성사는 미에방적 · 오사카방적 · 가나킨제직 → 산에이(三榮)면포조합 → 미쓰이물산으로 이어진 유통채널을 통해 면포를 공급받아왔는데 그 후 오사카방적이 가나킨제직(1906)과 미에방적(1914년)을 합병하여 동양방적으로 개편되자 이들 3사의 면포수출카르텔조직인 산에이(三榮)면포수출조합도 자동 해체되었다. 이에 동양방적은 산에이면포수출조합 대신 미쓰이물산에 위탁판매권을 독점시켰는데 1918년 5월 동양방적이 그간의 위탁판매 제도를 개정하여 미쓰이물산이 동양방적의 면포를 '전부 매입'하여 팔도록 하였다. 이에 미쓰이물산도 산하의 특약점들에 위탁판매를 맡기고 수수료를 주던 방식을 폐기하였다. 이제 특약점들도 미쓰이물산에서 현물 또는 선물(先物) 약정으로 면포를 매입하여 팔도록 한 것이다. 면포 거래의 '일대 혁명'이었다.[96] 이에 개성사를 비롯한 특약점들은 미쓰이물산에서 면포 판매를 위탁받아 팔고 수수료 등을 받던 종래 방식을 계속할 수 없었다. 한편 동양방적은 1920년 4월 미쓰이물산이 그 회사 면화부를 독립시켜 동양면화주식회사로 개편한 가운데 동양면화주식회사로 하여금 면화, 면포, 면사의 거래와 독점판매를 계속하게 하였으나 급기야 1923년에 그간의 독점판매 제도를 자유 거래제로 바꾸었다.[97] 면포 거래가 자유경쟁 시대를 맞은 것이다.

이런 속에서 개성사는 서울(경성)에 지점을 설치하고 인삼과 석탄 같은 새로운 아이템을 찾는 등 활로를 모색한 것 같다.[98] 1918년 9월에는 경성부 공평동 87번지의 대지 64평짜리 점포를 1만 7,500원에 매입하여 지점을 냈고,[99] 1919년 7월에는 운송업에도 진출하였

94) 韓生, 앞의 글, 1918.

95) 『매일신보』 1914.2.1. '開城社의 자본증가', 1918.6.13. '개성사의 增資'

96) 稅田谷五郎, 앞의 글, 1927.

97) 稅田谷五郎, 앞의 글, 1927.

98) 『매일신보』 1922.3.24. '고려인삼 수확 74만 근.'

99) 『매일신보』 1935.2.25. '한가지 토지소송에 피고가 394명. 공유권이 중간생략되지 않아. 부내 공평동의 대지' - "시흥군 영등포 정인환은 부내 죽첨정 3정목 299 이병수 외 393명을 걸어.... 토지소유권 이전 소송을 제기.... 사건은 부내 공평동 87번지 대지 64평을 1918년 9월 30일에 1만 7,500원의 합자회사 개성사(지금은 해산)가 사 가지고 다시 피고의 한사람인 이병수의 아버지가 1만 8,500원에 산

www.kci.go.kr

다.[100] 운송점과의 거래를 내부화한 것이다. 경성지점은 반동공황 후인 1921년 7월에 일시 폐쇄하였다가 1922년 9월 무연탄 특약판매를 위하여 공평동에 재설치하였다.[101] 출자자도 일부 바뀌었다(표 16). 창립대표 김익환을 대신하여 박우현이 사장이 되었는데 그는 개성 군수 등을 역임한 인물로 1912년 10월에 개성의 대표적인 자산가였던 손봉상, 김원배, 공성학, 김정호 등과 함께 상품 도산매와 위탁판매, 창고업, 금융업 경영을 목표로 영신사(永信社)를 설립하여 대표를 지낸 개성 최고의 명망가이자 자산가였다.[102] 그 후 개성사는 1928년에 박우현 등 출자사원 4명이 사망 등으로 퇴사하여 자본금 규모가 크게 줄며 업세가 더욱 위축되었다. 그리고 1931년경에는 이미 그간의 상업경영은 중단한 채 농장경영 쪽으로 사업의 중심을 옮겼던 것 같다.[103]

〈표 16〉 개성사의 출자자

금액 : 원

1921		1923,25	1927	1929,1931
대표	朴宇鉉(75,000)	박우현(75,000)	박우현(75,000)	
전무	朴泰鉉(143,625)	박태현(143,625)	박태현(143,625)	박태현(143,625)
이사	高燾厚(103,250)	고도후(103,250)	고도후(103,250)	고도후(103,250)
〃	崔基昌(28,500)	최기창(28,500)	최기창(28,500)	
감사	鄭載東(47,500)	정재동(47,500)	정재동(47,500)	정재동(47,500)
〃	馬承圭	마승규(5,000)	마승규(5,000)	마승규(5,000)
사원	金鶴基(57,000)	김학기(57,000)	김학기(57,000)	김학기(57,000)
〃	金麗煥(19,000)	김여환(19,000)	김여환(19,000)	외 4명
	외 5명	金益煥(14,000)	김익환(14,000)	
		李圭弘(3,375)	외 4명	
		崔進永(2,500)		
		李永輔(1,250)		
계	50만 원	50만 원	50만 원	37만 7,500원

자료 : 中村資良 편, 앞의 책, 각 연도.

것을 지난 1월 6일에 세 번째 3만 원을 주고 원고가 샀는데 소유권 이전에 개성사원(피고들)의 공권이 중간생략이 되지 않아 소송을 일으킨 것."

100) 『매일신보』 1919.8.1. '合名會社 開城社'. 정관도 변경하여 1921년 현재 영업목표가 '면포, 곡류 및 잡화류의 판매, 각종 상품의 위탁판매, 창고금융업, 운송업'으로 확대되었다. 중촌자량 편, 앞의 책, 1921.

101) 『매일신보』 1920.11.19. '李世賢君, 合名會社 開城社 支店長', 1921.4.9. '東洋物産 支配人', 1921.7.29. '開城社 京城出張所 廢業' ; 『동아일보』 1922.9.18. '개성사 출장소 설치'

102) 조기준, 『한국기업가사』, 박영사, 1983.

www.kci.go.kr

4. 결어

이상에서 1913년 4월 개성의 인삼사업자를 비롯한 자산가 11명이 상품의 판매와 위탁판매, 창고업, 대금업 경영을 목표로 설립한 합명회사 개성사의 창립과 창립 초의 경영 실태, 특히 외국회사와의 특약점 계약을 살펴보았다. 여기서 발견한 몇 가지 사실과 추후 과제를 언급하여 결론에 대신하려고 한다.

설립 초 개성사는 일본의 미쓰이물산, 미국의 스탠다드석유회사, 영국의 영미연초회사 같은 글로벌대기업들과 특약점 계약을 체결하고 일본산 면포와 미국산 석유, 담배 같은 신상품들을 공급받아 개성과 그 인근에 판매하였다. 그중 가장 큰 비중을 점한 것은 미쓰이물산이 공급한 일본산 면포였다. 당시 개성사가 일본 최고의 무역상사였던 미쓰이물산과 특약을 맺은 데는 그만한 배경이 있었다.

개성은 조선 후기 이래 인삼의 경작과 제조, 수출의 메카이자 송도사개치부법 같은 고유의 상사제도를 발전시켜온 오랜 상업 도시였다. 그리하여 이곳 상인들은 이미 19세기 중엽에 중국에 홍삼을 수출하고 그 대금으로 당시 중국에 들어와 있던 서양포목을 수입 판매하는 일에 나서기도 하였다. 20세기 초에도 개성은 홍삼의 원료인 양질의 수삼과 백삼, 미삼 등을 매각하여 상당한 자금을 축적하였고 그에 상응한 무역 인프라도 갖추었다. 경의선, 경원선을 따라 개성과 인근 지역에 철도역, 화물 창고, 운송점이 들어섰고, 무역금융을 취급할 대한천일은행, 한호농공은행, 한성은행 등 국내은행은 물론 일본 제일은행 지점도 설치되었다. 우편국은 실시간으로 무역 정보를 주고받을 전신, 전화, 우편, 소포 서비스를 제공하였고, 무역 분쟁과 사법 수요를 감당할 재판소와 경찰서도 설치되었다. 뉴스와 시황을 전할 지역신문과 전국신문의 지사가 운영되었고, 개성 포구 벽란도에는 세관이 설치되었다. 무역업에 나설 여러 조건이 갖추어졌다.

미쓰이물산도 마찬가지였다. 외국과의 무역은 정보의 비대칭성이 심하여 리스크가 컸다. 수출업자는 수입업자의 신용을 모르고 수입업자는 수출업자의 신용을 알기 어려웠다. 한국 같은 식민지 신흥시장(emerging market)은 더욱 그랬다. 그래서 당시 한국에는 특약점 개설이 붐을 이루었다. 수출업자가 현지의 상인, 자산가 중에서 신용이 풍부한 파트너를 정하여 취급 상품, 판매지역, 거래 조건 등을 특별약정하고 판매권을 부여하였다. 수출업자는 새로운 판로를 개척하고 과도한 경쟁에 따른 가격하락이나 대손(貸損)의 위험을 막을 수

103) 中村資良 편, 앞의 책, 1931의 "1928년 사원 4명 퇴사로 자본금 감소(元 50만 원). 전기 영업을 중지하고 목하 농장경영을 함"(이는 1933년 이후 판본 모두 같음)과 『매일신보』 1935.2.25. '한가지 토지소송에 피고가 394명.... 공평동의 대지'의 "합자회사 개성사(지금은 해산)" 참조.

www.kci.go.kr

있으며, 현지 상인은 해당 제품의 판매권을 가지는 데다 계약에 따라 수수료와 매출액 일부를 성과급으로 돌려받을 수 있어 장점이 많은 제도였다. 관건은 믿을만한 파트너를 선정하는 일인데 미쓰이물산은 1907년에 이어 1909년에도 1910년부터 5년간 개성 홍삼의 판매 독점권을 불하받은 터라서 개성의 인삼사업자는 물론 그곳 재계 인사들의 평판과 신용을 누구보다 잘 알았다. 미쓰이물산으로서는 인삼 매입을 위하여 개성에 풀었던 자금을 일본산 면포를 팔아 다시 회수하는 구조를 만든 셈이었다. 당시 개성사가 미쓰이물산과 어떤 특약을 맺었는지는 자세히 알 수 없다. 다만, 개성사의 기록에 따르면 판매 보증금은 따로 내지 않았고 판매량에 따라 매매차익과 신인금(信認金), 수수료, 특별수수료, 운임 등을 받았으며 대금 결제기한은 40일 정도였다.

개성사는 스탠다드석유회사와도 특약을 맺었다. 당시 석유는 고가의 신상품으로 수요가 급증하여 '황금알을 낳은 거위'로 인식되었다. 그래서 특약점 선정 때 거액의 보증금과 별도의 창고를 요구하여 해당 지역의 일류 자산가가 아니면 선정되기 어려웠다. 실제로 스탠다드석유 서울 특약점은 전원 서울의 일본인 거상들이었다. 개성사도 개성의 일류회사로서 3천 원의 거액을 판매 보증금으로 맡기고 솔표, 승리표 등 석유를 공급받아 판매량에 따라 수수료, 창고료, 누료(漏料)를 받았다. 담배도 마찬가지였다. 영미연초회사와 특약을 맺어 판매 보증금 500원을 맡긴 후 판매량에 따라 수수료, 할인금, 보료금(保料金) 등을 받았다.

개성사는 그곳의 영신사 등 당시 상업회사들이 흔히 그랬듯이 대금업도 하였다. 그리하여 창립 첫해인 1913년 4월부터 이듬해 4월까지 총 1만 8,559원의 '이익'을 보았는데 그중 9,291원(50.1%)은 상품판매 이익이고 9,268원(49.9%)은 이자 수입이었다. 상품판매 이익의 대부분인 7,614원(총이익의 41.0%)은 면포 거래에서 나왔다. 그 뒤를 총이익의 5.7%를 점한 석유와 면사, 담배 거래 등이 이었는데 면포의 판매 이익은 매매차익 2,430원과 신인금 730원, 수수료 1,460원, 특별수수료 1,460원, 운임 1,533원 등 광의의 수수료로 구성되었다.

창립 초 개성사는 제1차 세계대전 특수로 한때 서울에 지사를 설치하고 운송업에 진출하는 등 업세를 크게 늘렸으나 그 후 오사카방적 · 가나킨제직 · 미에방적 → 산에이면포수출조합 → 미쓰이물산으로 이어진 면포 유통방식이 개편되며 타격을 받은 것 같다. 그리고 1930년대 중반에는 이미 상업경영보다 농장경영 쪽으로 중심을 옮긴 것 같다.

이상에서 매우 제한된 자료로 1910년대 개성사의 설립과 운영, 그리고 당시 한국의 상업회사와 글로벌대기업을 연결한 고리였던 특약점(sale agent) 제도를 살펴보았다. 개성사와 특약점 계약을 맺은 상대편 파트너였던 미쓰이물산 등 글로벌대기업의 자료에 접근하는 일은 추후의 과제로 남기고 싶다. 아울러 개성사의 『일기』와 『타급장책』에 대한 회계사적(會計史的) 검토 역시 다음의 과제로 남겨두려고 한다.

www.kci.go.kr

〈참고문헌〉

자료

『日記 第壹. 開城社 大正貳年癸丑 陰四月拾五日陽五月二十日 上吉辰』(1913).
『他給長冊 第壹. 開城社 大正貳年癸丑陰四月拾五日陽五月二十日上吉辰』(1913-1914).
『外上長冊 第壹. 開城社 大正貳年 癸丑 陽五月二十日 陰四月拾五日 上吉辰』.
〈平壤 天元堂藥房 取引店 設定에 對한 規正〉.

논저

강경락, 「1930년대 미국종 엽연초 재배와 중국 농가경영」, 고려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1988.
강진아, 『동순태호 -동아시아 화교 자본과 근대 조선』, 경북대학교출판부, 2011.
강진아, 『이주와 유통으로 본 근대 동아시아 경제사 -동순태호 담걸생 이야기』, 아연출판부, 2018.
고동환, 「조선후기 開城의 도시구조와 상업」, 『지방사와 지방문화』 12, 역사문화학회, 2009.
고동환, 「조선후기~한말 신용거래의 발달」, 『지방사와 지방문화』 13-2, 2010.
金基浩, 『開城旧景』, 대한공론사, 1972.
金基浩, 『松都治簿法四介文書의 槪要』, 東光印刷所, 1986.
김재호, 「개항기 원격지 무역과 '회사'」, 『경제사학』 27, 경제사학회, 1999.
김희신, 「在朝鮮 中華商會의 설립과정과 존재양태 -1912~1931년 경성지역을 중심으로」, 『중국근현대사연구』 73, 중국근현대사학회, 2017.
內外商品新報社編輯部 編, 『朝鮮商業總覽』, 京城: 內外商品新報社, 1915.
류승렬, 「한말 · 일제초기 상업변동과 객주」, 서울대 박사논문, 1996.
박은숙, 『시장의 역사 -교양으로 읽는 시장과 상인의 변천사』, 역사비평사, 2008.
배석만, 「일제시기 입전(立廛) 상인 백씨 집안의 경제활동 -대창무역주식회사의 설립과 경영과정을 중심으로」, 『인문논총』 73-3, 서울대학교 인문학연구원, 2016.
변광석, 「18-19세기 開城의 市廛과 상업관행」, 『역사와 경계』 64, 경남사학회, 2007.
양정필, 「근대 개성상인의 상업적 전통과 자본 축적」, 연세대박사논문, 2012.
양정필, 「일제강점기 개성 시변(時邊)의 변화 고찰」, 『역사문제연구』 37, 역사문제연구소, 2017.
양정필, 「개성상인과 중국 山西 상인 비교연구」, 『탐라문화』 62, 제주대학교 탐라문화연구원, 2019a.
양정필, 「개성상인과 일본 오미[近江] 상인의 비교 연구 -그 기원과 정치권력과의 관계를 중심으로」, 『역사와 실학』 62, 역사실학회, 2019b.
여영섭, 「석유 이야기 -구한말시대의 석유 수입과 유통 1~2」, 『석유와 에너지』 304, 305, 대한석유협회, 2017.
연갑수, 「19세기 중엽 조청간 교역품의 변화」, 『한국사론』 42, 서울대학교 국사학과, 1999.
오진석, 「일제하 박흥식의 기업가 활동과 경영이념」, 『동방학지』 118, 연세대 국학연구원, 2002.
오진석, 「1897~1900년 서울지역 마차회사(馬車會社)의 설립과 경영변동」, 『역사학보』 197, 역

www.kci.go.kr

사학회, 2008.
왕현종, 「일제초 개성시가지의 변화와 개성상인의 경제기반」, 『동방학지』 194, 연세대 국학연구원, 2021.
이승렬, 『제국과 상인 - 서울 · 개성 · 인천 자본가들과 한국 부르주아지의 기원, 1896~1945』, 역사비평사, 2007.
이승렬, 「서울 · 경기지역 상인의 일기(1899~1910)에 나타난 일상체험과 근대적 공공성 - 유상(油商) 주인식의 '민족의식' 형성을 중심으로」, 『한국사연구』 146, 한국사연구회, 2009.
이승렬, 「한말 · 일제하 '근대의 충격'과 수원 지역 상인층의 대응」, 『향토서울』 84, 서울역사편찬원, 2013.
이영학, 「담배의 사회사」, 『역사비평』 22, 역사비평사, 1991.
이영학, 『한국 근대 연초산업 연구』, 신서원, 2013.
이영호, 「인천 개항장의 한국형 매판, 徐相濮의 경제활동」, 『사학연구』 88, 한국사학회, 2007.
이태진 외, 『서울 상업사 연구』, 태학사, 1998.
이헌창, 「19세기, 20세기초 상거래 회계문서로서의 掌記에 관한 연구」, 『古文書硏究』 35, 고문서학회, 2009.
전성호, 「조선후기 환어음 거래분석(1887~1900)」, 『한국학연구』 38, 고려대 한국학연구소, 2011a.
전성호, 「개성상인 삼포경영 비용구조 분석」, 『경영사학』 26-3(59호), 한국경영사학회, 2011b.
전성호, 「개성 시변제도 연구」, 『대동문화연구』 78, 성균관대학교 동아시아학술원, 2011c.
전성호, 「한국 전통 회계의 원장 계정 기입 기법과 이탈리아 비둘기집 이론과의 비교 연구」, 『사학연구』 101, 2011d.
전성호, 「19세기 개성상인 일기(日記: Day Book)의 특성 연구」, 『태동고전연구』 44, 한림대학교 태동고전연구소, 2020.
전우용, 『한국 회사의 탄생』, 서울대학교출판문화원, 2011.
정기숙, 「사개송도치부법의 기장원리와 장부조직에 관한 연구」, 전성호 · 허성관 외, 『한국전통회계와 내부통제시스템(Ⅱ)』, 민속원, 2011.
정승교, 「외국점포와 수입품의 등장」, 『서울2천년사 22, 근대서울의 경제와 개시』, 서울시시사편찬위원회, 2014.
조기준, 『한국기업가사』, 박영사, 1983.
조익순, 『四介松都治簿法 前史 : 우리나라 固有簿記의 발자취』, 해남, 2000.
조익순 · 정석우, 『(조선시대 회계문서에 나타난) 사개송도치부법의 발자취』, 박영사, 2006.
최광호, 「개성사 장부 분석에 의한 사개송도치부법 연구」, 대구카톨릭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2020.
최낙민, 「1920년대 개성상인들의 홍삼 판로 시찰기 고찰 -『중유일기』와 『향대기람』을 중심으로」, 『중국학』 73, 대한중국학회, 2020.
하지연, 「타운센드 상회(Townsend & Co.) 연구」, 『한국근현대사연구』 4, 한국근현대사학회, 1996.
韓 生, 「開城의 企業界」, 『半島時論』 2권 5호, 1918.5.
허성관, 「한국 전통회계 연구의 성과와 과제」, 『회계저널』 23-1, 2014.
허성관, 「박영진家의 19세기 사개송도치부 장부 회계순환 구조」, 『회계저널』 24-2, 2015.
허성관, 「박영진가의 19세기 복식부기 장부 회계처리 방법의 진화」, 『경영학연구』 45-3, 한국경영학회, 2016.
허성관, 「박영진가 복식부기 장부의 20세기 전후 삼포(蔘圃)회계와 현대적 경영사고」, 『경영학

www.kci.go.kr

연구』 46-4, 2017.
허성관, 『개성상인의 탄생 - 세계 최고의 복식부기를 만든 사람들』, 만권당, 2018a.
허성관, 「조선왕조 말 개성상인 농업회계」, 『역사와융합』 2, 바른역사학술원, 2018b.
玄丙周, 『實用自修 四介松都治簿法 全』, 金東縉 發行 德興書林 藏版, 1916.
홍성찬, 「한말 일제하의 지주제 연구 - 강화 홍씨가의 추수기와 장책 분석을 중심으로」, 『한국사연구』, 33, 한국사연구회, 1981.
홍성찬, 「한말 · 일제하의 서울 종로 상인 연구」, 『동방학지』 116, 2002.
홍성찬, 「한말 · 일제하의 지주제 연구」, 『동방학지』 122, 2003.
홍성찬, 「한말 · 일제하 서울 종로상인의 일상활동」, 『동방학지』 133, 2004.
홍성찬, 「한말 서울 동막의 미곡객주 연구」, 『경제사학』 42, 2007.
홍성찬, 「한말 서울 동막객주의 미곡반입과 재래 선운업」, 『한국사연구』 145, 2009a.
홍성찬, 「일제하 한일 무역네트워크 형성의 한 양상」, 『동방학지』 145, 2009b.
홍성찬, 「한말 서울 동막 객주의 미곡 거래와 荷主들, 『동방학지』 159, 2012.
홍성찬, 「한말 일제초 서울 동막객주의 정미업 진출과 경영」, 『경제사학』 55, 2013.
홍성찬, 「한말 일제 초 서울 상인과 한국 부르주아지의 기원」, 『한국경제학보』 55, 연세대 경제연구소, 2014.
홍성찬, 「일제하 서울 종로상인의 자산운용」, 『동방학지』 170, 2015.
홍성찬, 「19세기 말 서울 동막 객주의 미곡 거래」, 『동방학지』 176, 2016.
홍희유, 「송도 4개문서에 반영된 松商들의 都賈활동」, 『력사과학』 4, 1962.
廣江澤次郎, 「朝鮮煙草界의 實狀과 對支發展策」, 『赤心一片』, 1915.
大森研造, 「開城簿記法の形式과 內容」, 『會計』 13-1(53), 東京: 日本會計學會, 1923.
藤村德一, 『全鮮府邑會議員銘鑑』, 朝鮮經世新聞社, 1931.
杉本德榮, 『開城簿記の論理』, 東京: 森山書店, 1998.
石川亮太, 『近代アジア市場と朝鮮 : 開港 · 華商 · 帝國』, 名古屋大學出版會, 2016.
善生永助, 『朝鮮人の商業』, 朝鮮總督府, 1925.
稅田谷五郎, 「朝鮮綿布史(各論)」, 『朝鮮』 117, 朝鮮總督府, 1927.
日本經営史研究所, 『稿本三井物産株式会社100年史』, 東京: 日本經営史研究所1978.
朝鮮新聞社 編, 『朝鮮人事興信錄』, 朝鮮人事興信錄編纂部, 1935.
中村資良, 『朝鮮銀行會社組合要錄』, 東洋經濟新報社, 각 연도.
Howard Cox, *The Global Cigarette : Origins and Evolution of British American Tobacco 1880-1945*,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2000.
Jeon Sung-Ho, James E. Lewis, and Sung Kwan Huh, "Korean Double-entry Merchant Accounts from Kaesong City(1786-1892)", *Sungkyun Journal of East Asian Studies*, 13(2), 2013.

투고일: 2021. 5. 18	심사일: 2021. 6. 7	게재확정일: 2021. 6. 15

www.kci.go.kr

〈Abstract〉

The Establishment and Management of the Gaeseong-Sa Company : An Analysis of the Journal(1913) and the Liability Ledger(1913~1914)

Hong, Sung-Chan*

The Gaeseong-Sa Company was established in 1913 by ginseng growers and wealthy individuals in Gaesong for the purpose of commodity sale and consignment, warehousing, and moneylending. In the 1910's, the Gaeseong-Sa entered into agency agreements with global companies like the Mitsui Trading Co., the Standard Oil Co., and the British-American Tobacco Co., and imported new products like cotton cloth, oil products, and cigarettes. This paper focuses on how the Gaeseong-Sa had been established and what the contents of the agency agreements were with those firms. In the early 1900's, Korea had witnessed a boom in agency agreements to the extent that we may call it 'the Age of Agencies'. However, not much attention has been paid to the agencies of this period and their historical significance. Furthermore, meticulous researches on the establishment and management of commercial companies in Korea during this period that delves into their ledgers are, if any, rare, even though commerce was relatively more flourishing than agriculture and manufacture in the 1910's in Korea. This paper tries to bridge this gap in research.

Keywords: Gaeseong merchants, Gaeseong ginseng, sales agent, Kim Ik-hwan, Mitsui Trading Company, Standard Oil Company, British-American Tobacco Company.

* Professor Emeritus, Yonsei University, Seoul, Korea.

www.kci.go.kr